

# 대전시 1인 가구의 증가와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rban Policy as to Increase of One Person Household in Daejeon Metropolitan Area

임 병 호

---

## 연구진

연구책임

- 임병호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 요 약

##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최근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가 진행되는 도시환경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적절한 도시정책 수립 및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대전시 1인 가구의 특성을 진단하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대응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대전시 도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전시에서 실시한 사회경제조사 설문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1인 가구의 실증적인 요구와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전시 1인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응방안은 선행계획 및 연구 그리고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제안하였다.

## 제2장 이론적 고찰

### 1. 1인 가구의 정의 및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및 선행연구 등에 기초하여, 1인 가구를 '독립적으로 의식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구'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토록 한다.

1인 가구의 발생요인은 일반적으로 초혼연령의 상승, 이혼율 증가, 개인주의 확산,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및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보면, 1인 가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1인 가구가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사회, 경제적 특성이 명료하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는 소형, 효율, 안전, 나라고 할 수 있다.

## 2. 선행연구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결과, 1인 가구 관련 연구는 인구주택센서스 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주거실태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기타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동향과 더불어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도시환경 변화와 관련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미진한 연구도 주로 서울시를 대상 또는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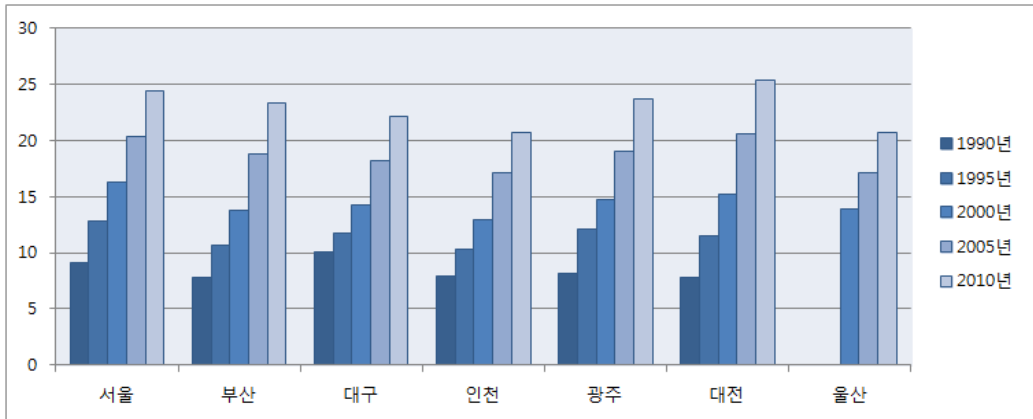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나라 1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도시)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도시사회 환경여건에 기초하고 있다.

# 제3장 대전시 1인 가구 실태 진단

## 1. 대도시 1인 가구 사회·경제적 여건 비교

2010년 기준 대전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대비 36.75%로 전국 주요 대도시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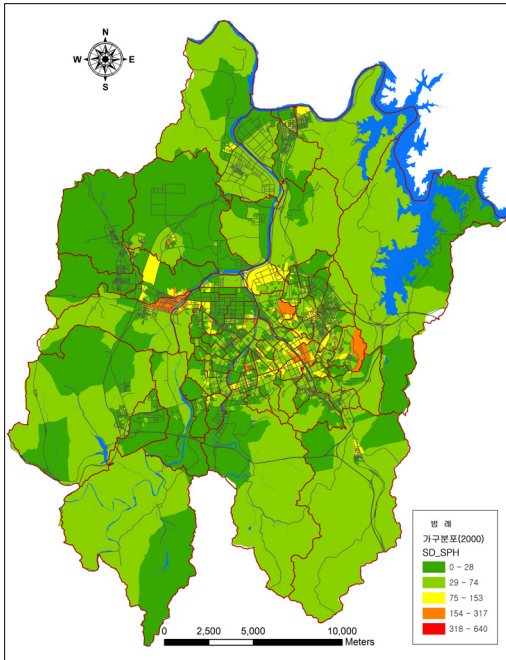
한편 대전시 1인 가구는 다른 대도시의 1인 가구에 비해, 20대 연령층이 많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적으며,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로는 미혼이 많으며, 직업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직업구조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주측면에서는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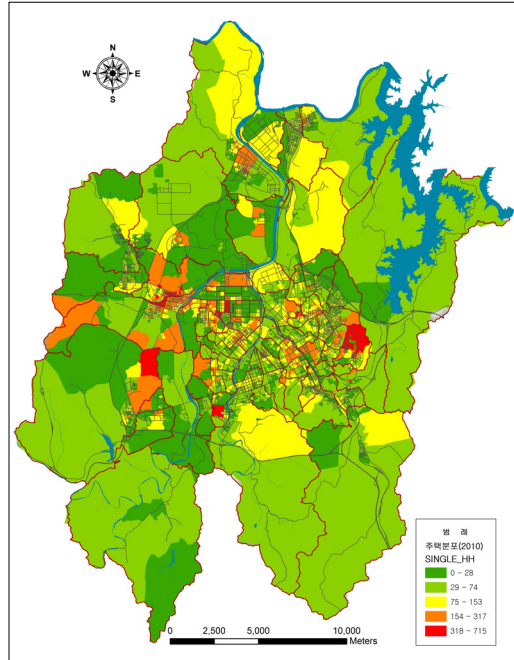
[7대도시 1인 가구 점유비율 변화 추이]

## 2. 대전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

대전시 1인 가구는 공간적으로 볼 때, 대학교 인접한 지역에 밀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구별 1인 가구의 분포를 살펴 본 결과, 서구와 유성구 중심의 신시가지에서 집중적인 증가가 진행되었다.



[2000년 대전시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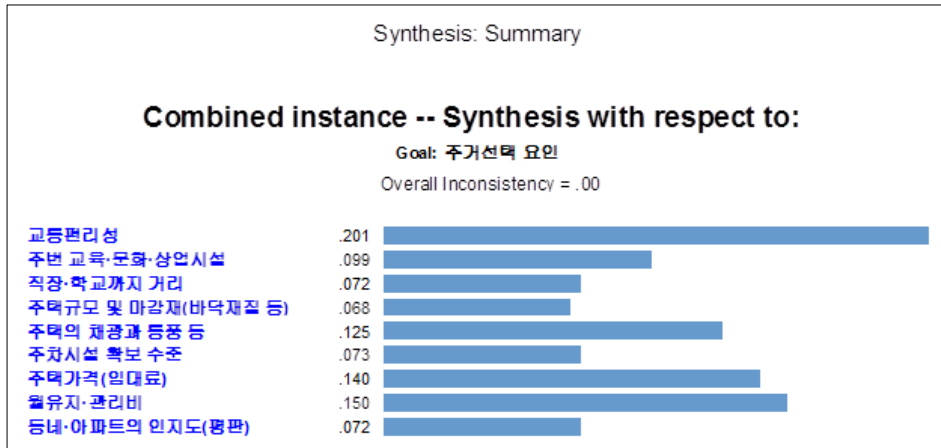


[2010년 대전시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대전시 1인 가구와 다인가구를 비교한 결과, 대전시 1인 가구의 교육수준은 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취업률이 낮고 또한 직업은 상대적으로 '고급'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소득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타가구 유형에 비해 높고, 월세유형의 점유형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지수는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대전시 1인 가구의 유형별 특성

대전시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별로 1인 가구 형성의 계기가 다르며, 특히 60대 이상 1인 가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1인 가구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학력의 경우 60대 이상 1인 가구는 낮으며, 직업유형은 20대 1인 가구는 학생, 30-50대 1인 가구는 판매서비스·개인사업 그리고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주부·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30-50대 1인 가구가 높고, 20대와 60대 이상의 1인 가구는 매우 낮은 월소득을 보이고 있다. 총자산의 경우 60대는 양극화되어 있으며,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여성이 많다. 주거유형은 20대 1인 가구는 다가구주택·기숙사, 30-50대 1인 가구는 아파트·다가구주택 그리고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아파트·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주택의 점유형태는 월세 및 전세비율이 70%를 차지한다. 주택규모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며, 주거환경 개선점은 20대 1인 가구는 높은 임대료, 30-50대 1인 가구는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부족,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주택유지비나 주택노후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자동차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유율이 높고, 20대 1인 가구의 주요 교통수단은 보행, 30-50대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0대 1인 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대 1인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선택 요건에 대한 조사 결과, 주거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통의 편리성과 월유지 및 관리비 저렴 등으로 나타났다.



[9개 주거선택 요소별 가중치]

## 제4장 장래 1인 가구 규모 검토

### 1. 우리나라 1인 가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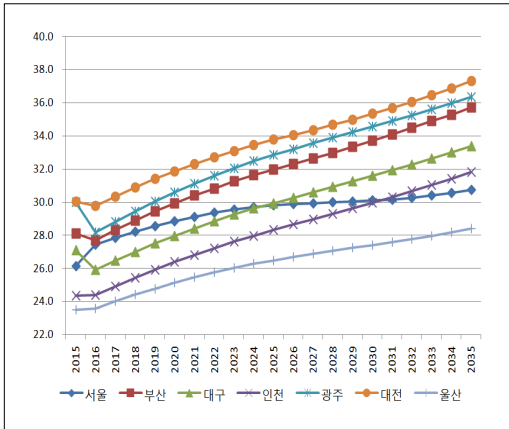
통계청에서는 2015년 이후 2035년까지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구수와 1인 가구수를 보면, 2015년 약 5백만명에서 2021년 6백만명을 넘어서며, 2030년에는 7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2015년 총 가구수는 약 18백만 가구, 2021년 약 20백만 가구 그리고 2030년 총 가구수는 약 21백만 가구로 예측되었다.

추정된 1인 가구수와 총가구수에 기초하여, 장래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을 산출하면, 2015년 27.8%에서, 2020년 29.6%, 2025년 31.3%, 2030년 32.7% 그리고 2035년에는 34.3%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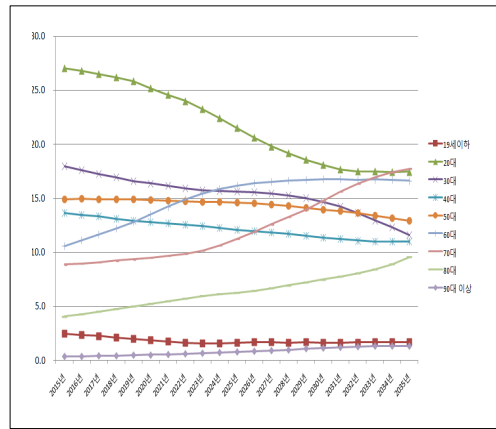
### 2. 대전시 1인 가구 규모

대전시 장래 1인 가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에 전체 가구수의 37.3%로 전국 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점유비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연령

대별로 보면, 20대 1인 가구와 60대 이상의 고령 1인 가구가 유사하게 수렴하고, 30-50대 1인 가구는 10% 초반에서 수렴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요 대도시 장래 1인 가구의 점유비율 변화]



[대전시 장래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점유비율 변화]

## 제5장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전시 대응방안

### 1. 선행계획 및 정책 검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한 1인 가구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나 대전시의 경우, 주택종합계획에서 1인 가구와 관련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2)에서는 1·2인 가구에 대한 연구결과, 첫째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대상가구 다변화 필요, 둘째 고용중심지 주변 소형·저렴 주택 공급확대 필요, 셋째 1·2인 가구 밀집 주거지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 방향, 넷째 1·2인 가구 수요자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 등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외국의 정책 검토

일본 도쿄도에서는 가구당 가구원수가 2010년 2.03인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35.9%에서, 2000년 40.9% 그리고 2010년 4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쿄도의 1·2인 가구 관련 주택 및 정책은 고령자 관련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도에서 시행하는 고령자관련 정책(주택)은 구립 고령자집합주택, 고령자원활입주임대주택, UR 고령자용 임대주택, UR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등이 있다.

## 3. 대전시 대응방안

대전시 1인 가구에 대한 분석결과, ① 대전시는 1인 가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② 대전시 1인 가구 관련정책은 다인 가구 유형에 비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약자적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복지정책과 연동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고, ③ 대전시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뚜렷한 사회·경제·주거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유형별 맞춤형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④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사회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등 4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서 ① 가변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거공간의 공급, ② 1인 가구에 적합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고령자 복지정책과 연동된 정책 추진, ③ 대전시 1인 가구의 요구에 대응한, 즉 20대 1인 가구는 저렴한 주거공간, 30-50대 1인 가구는 주차장 시설 등의 확보 그리고 60대 이상 1인 가구는 과도한 유지비 절감 방안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추진, ④ 주거공간에 대한 정책 외에 1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 및 커뮤니티 단위의 1인 가구 돌봄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첫째, 그동안 선행연구들이 모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지방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의미)되며,

둘째,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인구주택센서스 등 통계적 자료에만 의존하여, 1인 가구의 분포 및 사회적 특성 등을 도출하는데 그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계적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함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다양한 접근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HP 기법 등을 이용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선택요인의 중요도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판단에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앞선 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전시 1인 가구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세밀한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체계화된 연구를 위한 하나의 시범연구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현장조사 등을 통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 목 차 〉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4
제2장 이론적 고찰 .....	9
제1절 1인 가구의 정의 및 일반적 특성 .....	9
제2절 선행연구 고찰 .....	15
제3장 대전시 1인 가구 실태 진단 .....	23
제1절 대도시 1인 가구 사회·경제적 여건 비교 .....	23
제2절 대전시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 .....	34
제3절 대전시 1인 가구의 유형별 특성 : 설문조사 .....	48
제4장 장래 1인 가구 규모 검토 .....	75
제1절 우리나라 1인 가구 규모 .....	75
제2절 대전시 1인 가구 규모 .....	80
제5장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전시 대응방안 .....	89
제1절 선행 계획 및 정책 검토 .....	89
제2절 외국의 정책 검토 : 일본의 도쿄의 사례 .....	95
제3절 대전시 대응방안 .....	101
제6장 결론 .....	107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107
제2절 연구의 시사점 .....	110
참 고 문 헌 .....	111
부 록 .....	113

## 〈표 차례〉

[표 2- 1] 1인 가구 집단의 사회 문화적 특성 .....	11
[표 3- 1] 전국 및 주요 대도시 1인 가구 변화 .....	23
[표 3- 2] 전국 및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가구수 및 비율 .....	25
[표 3- 3] 전국 및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교육수준별 가구수 및 비율 .....	27
[표 3- 4] 전국 및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가구수 및 비율 .....	28
[표 3- 5] 전국 및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직업별 가구수 및 비율 .....	30
[표 3- 6] 전국 및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점유형태별 가구수 및 비율 .....	31
[표 3- 7] 전국 및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거처 종류별 가구수 및 비율 .....	33
[표 3- 8] 대전시 1인 가구 규모 변화 추이 .....	34
[표 3- 9] 대전시 5개 구청별 1인 가구 변화 추이 .....	35
[표 3-10] 대전시 5개 구별 1인 가구 점유비율 .....	36
[표 3-11] 대전시 가구 유형별 가구주의 교육정도 .....	41
[표 3-12] 대전시 가구 유형별 가구주의 혼인관계 .....	42
[표 3-13] 대전시 가구 유형별 가구주의 취업여부 .....	42
[표 3-14] 대전시 가구 유형별 가구주의 직장유형 .....	43
[표 3-15] 대전시 가구 유형별 월소득 .....	44
[표 3-16] 대전시 가구 유형별 거처의 종류 .....	45
[표 3-17] 대전시 가구 유형별 점유형태 .....	46
[표 3-18] 대전시 가구 유형별 행복지수 .....	47
[표 3-19]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50
[표 3-20] 1인 가구 유형별 1인 가구 형성의 계기 .....	51
[표 3-21] 1인 가구 유형별 향후 혼자 생활 여부 .....	52
[표 3-22] 1인 가구 유형별 학력 .....	53
[표 3-23] 1인 가구 유형별 직업유형 .....	54

[표 3-24] 1인 가구 유형별 월소득 .....	55
[표 3-25] 1인 가구 유형별 총자산 .....	56
[표 3-26] 1인 가구 유형별 성구분 .....	57
[표 3-27] 1인 가구 유형별 주택구분 .....	58
[표 3-28] 1인 가구 유형별 주택 점유형태 .....	59
[표 3-29] 1인 가구 유형별 주택 규모 .....	60
[표 3-30] 1인 가구 유형별 주거환경 개선점 .....	61
[표 3-31] 1인 가구 유형별 자동차 보유 .....	62
[표 3-32] 1인 가구 유형별 출퇴근 시 주요 교통수단 .....	64
[표 3-33] 1인 가구 유형별 생활만족도 .....	65
[표 3-34] 1인 가구 유형별 주거환경 만족도 .....	67
[표 4- 1] 우리나라 장래 1인 가구비율 예측(단위 : 가구, %) .....	76
[표 4- 3] 2015년 기준 대전시 및 주요 대도시 장래 1인 가구 규모 비율 .....	81
[표 4- 4] 주요 대도시의 장래 1인 가구비율 예측(단위 : %) .....	83
[표 4- 5] 대전시 장래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 예측(단위 : %) .....	84
[표 5- 1] 도쿄도 가구수 및 가구당 가구원수 .....	95
[표 5- 2] 도쿄도 가구원수별 가구수 현황(단위 : 가구) .....	96
[표 5- 3] 도쿄도 1·2인 가구 관련 주택정책 개요 .....	99
[표 5- 4] 일본의 소형주택 분류 및 특성 .....	100

## 〈그림 차례〉

[그림 1- 1] 연구의 진행방법 .....	4
[그림 1- 2] 연구의 진행과정 .....	6
[그림 2- 1] 1인 가구 용품 .....	12
[그림 2- 2] 코콘하우스 .....	13
[그림 2- 3] 1인 가구의 특성과 소비 트렌드 .....	14
[그림 3- 1] 7대도시 1인 가구 점유비율 변화 추이 .....	24
[그림 3- 2] 7대도시 1인 가구 증가율 변화 추이 .....	24
[그림 3- 3]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분포 .....	26
[그림 3- 4]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교육수준별 분포 .....	27
[그림 3- 5]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	29
[그림 3- 6]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직업별 분포 .....	30
[그림 3- 7]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점유형태별 분포 .....	32
[그림 3- 8]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거처종류별 분포 .....	33
[그림 3- 9] 대전시 1인 가구 증가율 및 구성비 변화 .....	34
[그림 3-10] 대전시 구별 1인 가구 규모 변화 .....	35
[그림 3-11] 대전시 5개 구별 1인 가구의 점유비율 변화 .....	36
[그림 3-12] 2000년 대전시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	37
[그림 3-13] 2005년 대전시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	38
[그림 3-14] 2010년 대전시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	39
[그림 3-15] AHP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 .....	70
[그림 3-16] 주거선택 요인별 가중치 .....	71
[그림 3-17] 9개 주거선택 요소별 가중치 .....	72

[그림 4- 1] 2015년-2035년간 1인 가구비율 예측 .....	75
[그림 4- 2] 주요 국가별 1인 가구비율(2011년 기준) .....	77
[그림 4- 3] 일본과 미국의 1인 가구비율 변화 .....	78
[그림 4- 4]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1인 가구 비율 변화 .....	79
[그림 4- 5] 2015년 기준 주요 대도시 1인 가구규모 예측치 .....	82
[그림 4- 6] 주요 대도시 장래 1인 가구의 점유비율 변화 .....	83
[그림 4- 7] 대전시 장래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점유비율 변화 .....	85
[그림 5- 1] 시정촌별 가구당 인원(2005년) .....	96
[그림 5- 2] 도쿄도 가구원수별 가구수 현황 .....	97





# 제 1 장

##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는 핵가족화와 더불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단위가 과거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여성들의 사회진출, 과도한 결혼비용 그리고 이혼과 독거노인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up>1)</sup>

1990년 대전시 1인 가구비율은 전 가구의 7.8%였으나, 2000년 15.2%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의 경우 25.3%로 보다 급증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비해, 1인 가구에 대한 실태나 특성 등에 대한 진단 및 예측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선행 연구의 경우 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적 내용이나 공간적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가 진행되는 도시환경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적절한 도시정책 수립 및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대전시 1인 가구의 특성을 진단하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대응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대전시 도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전시에서 실시한 사회경제조사 설문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1인 가구의 실증적인 요구와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전시 1인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응방안은 선행계획 및 연구 그리고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제안하였다.

---

1) 삼성경제연구원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요인을 경제적 요인에서는 소득증가, 교육수준 향상, 여성고용 확대, 문화적 요인으로는 개인주의 확대, 초혼연령 상승, 사회적 요인으로는 고령화 심화, 남녀 평균 수명의 차이 등으로 적고 있다.(2012.p.2)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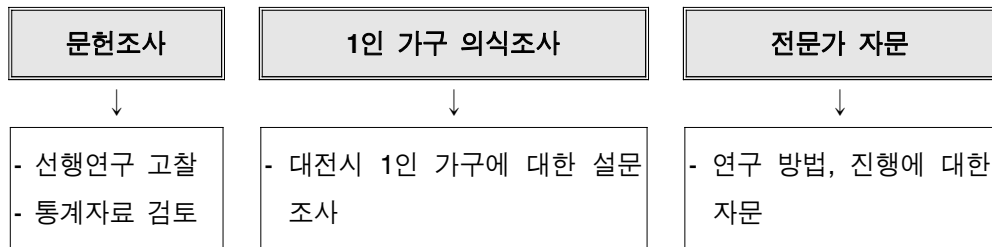
###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선행적으로 수행된 1인 가구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선행연구의 목적 및 접근법 등을 고찰하였으며, 전국 및 대도시 1인 가구의 현황 및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전시 1인 가구 실태 조사(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한편 이러한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그림 1- 1] 연구의 진행방법

###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목차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명료하게 설정토록 한다. 또한 연구목적에 적합한 방법론과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화한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1인 가구의 특성과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의 특성은 1인 가구의 정의 및 일반적 특성 등을 살펴보고,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앞서 진행된 연구들의 목적, 방법론 등을 검토하고, 연구접근의 한계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등을 도출한다.

제3장 '대전시 1인 가구의 실태 진단'에서는 대도시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여건 비교, 대전시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 그리고 대전시 1인 가구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다. 대도시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여건 비교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7대도시의 1인 가구를 비교·분석하며, 대전시 1인 가구와 다인가구 비교는 대전시 1인 가구와 다인가구(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간 사회, 소득 및 주거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세 번째 대전시 1인 가구의 유형별 특성은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20대 1인 가구, 30-50대 1인 가구 그리고 60대 이상 1인 가구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사회적, 경제적, 주거적 특성 등을 분석한다. 특히 이 분석에서는 AHP 기법을 이용하여 1인 가구의 주거선택 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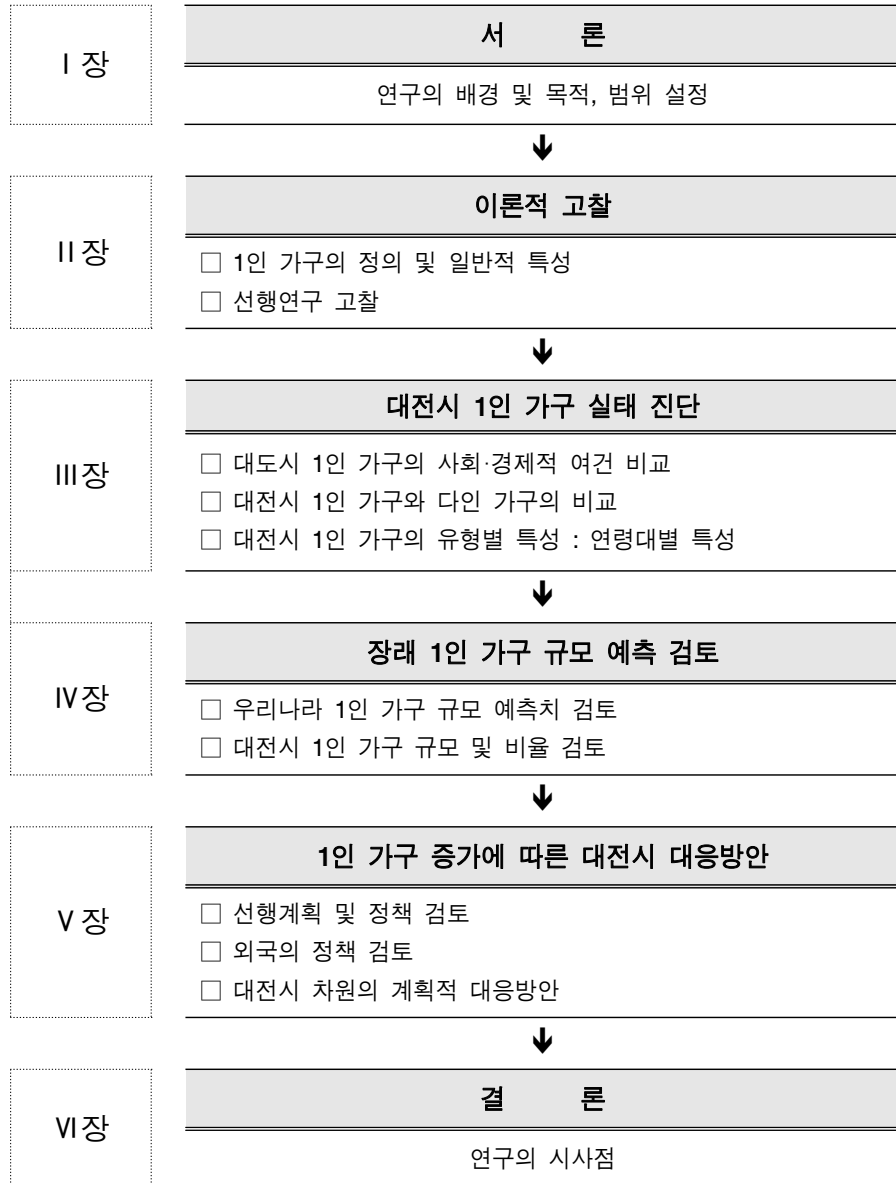
제4장 '장래 1인 가구 규모 검토'에서는 우리나라와 대전시 1인 가구의 규모를 예측하고자 한다. 실제 이 장에서는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전시 1인 가구의 2035년까지 인구 예측 결과를 검토한다.

제5장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전시 대응방안'에서는 앞서 분석된 내용에 기초하여, 대전시 1인 가구 정책의 과제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제시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1인 가구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계획 및 정책 등을 검토한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요약하며,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 3.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2] 연구의 진행과정

## 제 2 장

---

### 이론적 고찰

---

제1절 1인 가구의 정의 및 일반적 특성

제2절 선행연구 고찰

---





## 제2장 이론적 고찰

### 제1절 1인 가구의 정의 및 일반적 특성

#### 1. 1인 가구의 정의

통계청 및 선행연구에서는 1인 가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선 통계청에서는 1인 가구를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가구(Household)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하며, 따라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과 실제 같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상의 세대와 다를 수 있다.<sup>2)</sup>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에서는 1인 가구란 법적 배우자가 존재한다고 할 지라도 동거하지 않거나 경제생활을 공유하지 않는 가구, 혹은 이혼 전 단계로서 별거를 선택하여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한 세대와 소위 기러기 가족이나 주말부부 등 가족과 별거로 인한 가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에서는 1인 가구를 ‘혼자 사는 사람들’, ‘독립된 공간에서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는 사람들’로 설정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통계청 및 선행연구 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를 ‘독립적으로 의식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구’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토록 한다.

---

2)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기본용어’에 제시된 내용임

## 2.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

### 1) 1인 가구 발생요인 및 가구유형

1인 가구의 발생요인은 일반적으로 초혼연령의 상승, 이혼율 증가, 개인주의 확산,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신미림 외, 2011), 이러한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및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보면, 1인 가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1인 가구의 유형화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도출함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sup>3)</sup> 특히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유형화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선행연구 등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유형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창효 외(2010)는 1인 가구를 성, 연령, 혼인, 자발성, 소득 등의 측면에서 구분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1인 가구를 학생, 독거노인, 직장, 이혼자 및 사별자, 기타 경제적 사유로 혼자 사는 사람 등으로 구분하였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에서는 1인 가구를 [표 2- 1]과 같이 골드미스·미스터, 산업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였다.

---

3) 신은진 외(2010)와 이희연 외(2011)는 1인 가구는 발생요인에 따라 집단별로 사회 경제적 속성 면에서 상당한 이질성을 보인다고 적고 있다.

**[표 2- 1] 1인 가구 집단의 사회 문화적 특성**

영역 \ 대상	골드미스·미스터	산업예비군	불안안 독신자	실버세대
가치관	·개인주의 확산 ·개성과 다양성 존중	·3D업종 기피 ·속성은 의존적인 캐거리/코쿤족 요 소도 공존함	·가족가치 변화	·대가족제 붕괴
경제환경	·여성경제활동참가 율 증가 ·풍요로운 성장세대	·청년 실업률	·중장년 실업증가	·사회적 안전망 약화 ·노인빈곤율 증가
사회·문화적 영향	·남성 가부장역할 변화 ·긍정적 싱글이미지	·사회 부유(浮游)층 가능성	·교육현상과 기리기 가족 ·이혼율의 증가	·고령화 사회의 세 력 집단화 가능성
정책적 함의	·시장의 포섭대상으 로서 도시이미지 형 성에 긍정적 영향	·긴급한 정책지원 필요 ·현재적 문제 뿐 아 니라 고정 계층화 시 중·장기적 사회 문제 발생	·유동성이 큰 계층 ·비자발적 1인 가구 (가족해체자 등)는 빈곤층 대상임	·경제중심의 사회안 전망 지원 정책 ·공동체 통합성 지 원책

출처 : 서울시정연구원(2008)

## 2)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

### □ 솔로 이코노미

1인 가구에게 있어서 일반 가정처럼 큰 가구와 많은 생필품들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솔로 이코노미’라는 용어이다. 솔로 이코노미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기업들이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대형 마트에 구비된 소형 전자제품이나 1인용 야채 및 요리 등 작은 양으로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예로 들 수 있다. 1인용 밥솥과 벽걸이 세탁기처럼 집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가전제품들도 함께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상품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sup>4)</sup>

4) [http://blog.daum.net/korea\\_brand/2020\(2012.10.24.\)](http://blog.daum.net/korea_brand/2020(2012.10.24.))



**[그림 2- 1] 1인 가구 용품**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rgarden&logNo=10109503518>

### □ 코쿰하우스(cocoon house)

1인 가구의 집도 변하고 있다. 예전엔 아파트가 대세였지만, 이삿짐 필요 없이 집기가 모두 구비된 소형 주거형태인 ‘코쿰하우스’<sup>5)</sup>도 주목 받는 상황이다. 생필품의 구매를 줄이고 입주자의 편의를 높인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에 있어서 부담이 큰 ‘내 집 마련’ 걱정을 덜기 위해서 소형 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초소형 아파트’가 대세 중의 대세라고 할 수 있다.<sup>6)</sup>

‘나 혼자만의 작은 공간’이라는 의미의 코쿰하우스는 미혼 회사원이나 대학생, 원거리 출퇴근자, 주말부부 등 집 외에 한시적으로 주거 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일종의 ‘세컨드 하우스’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원룸과 고시원의 중산 형태라고 볼 수 있다.

5) 코쿰(cocoon)이란 곤충의 고치, 거미 등의 알을 싸는 보호용 자루 등을 의미한다.

6) [http://blog.daum.net/korea\\_brand/2020\(2012.10.24.\)](http://blog.daum.net/korea_brand/2020(2012.10.24.))



[그림 2- 2] 코쿤하우스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2moun&logNo=90124256270>

#### □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sup>7)</sup>

1인 가구의 부상은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이어 소비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1인 가구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데, 2011년 1인 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은 50조원에 이르며, 월평균 1인당 소비지출액이 95만원으로 2인 이상 가구의 73만원을 앞지른다. 특히 인구 비중과 소득, 지출이 모두 높은 20-50대 1인 가구는 주력 소비자로 주목받고 있다.

1인 가구의 부상이라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은 1인 가구의 특성과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인(多人) 가구와는 차별화된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는 고립되어 생활하는 특성상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며, 가족에 대한 의무가 적은 대신 자기 관리와 계발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편이다. 이에 따른 4대 소비 트렌드를 꼽아보면 ① 소형(크기는 줄이되 성능은 유지 :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

7) SERI 경영노트(2012),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

주택 등 콤팩트한 주택) ② 효율(제한된 자원의 효과적 사용 : 제한된 주거공간을 효율적이면서 심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기능 상품과 디자인 상품) ③ 안전(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 : 여성 및 고령자 특화 가정용 방범 서비스 인기) ④ 나(자기가치 제고와 여가 향유 : 패션, 미용, 취미를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 지출)를 들 수 있다.

### 1인 가구의 특성과 소비 트렌드



[그림 2- 3] 1인 가구의 특성과 소비 트렌드

출처 : [http://gnnews.newsk.kr/bbs/bbs.asp?group\\_name=426&idx\\_num=23859&exe=view](http://gnnews.newsk.kr/bbs/bbs.asp?group_name=426&idx_num=23859&exe=view)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 1. 선행연구

1인 가구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한지희 외(2011), 이현정(2012), 이희연 외(2011), 신미림 외(2011), 신은진 외(2010), 이창효 외(2010), 신상영(2010), 김옥연 외(2009),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2, 2008), 안진화 외(2008)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지희 외(2011)는 1인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거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이다. 연구결과로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소형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층과 고령화로 급증하는 노년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시급함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단기임대수요를 위한 주택을 개발해야 하며 각 연령대의 수요 특성에 따라 평면을 다양화하되 단지형으로 공급하여 개인화되고 분화된 가족구조를 단지 내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현정(2012)은 한국과 미국의 1인 가구 특성을 비교하였다. 비교에 사용된 자료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이며, 미국의 경우 American Housing Survey(AHS)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한국과 미국 모두 1인 가구의 학력이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한국과 미국 모두 1인 가구의 임차비율이 2인 이상 가구 중 임차가구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1인 가구의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미국은 오히려 1인 가구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1인 가구의 성향이 유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국가나 지역(도시)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희연 외(2011)는 인구, 경제,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1인 가구의 성장패턴과 공간분포를 연구하였다. 연구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1인 가구를

나이, 교육수준, 주거점유형태 그리고 주택유형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인 가구의 인구, 경제,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공간분포상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룹에 속하는 1인 가구가 집중·분포되어 있는가를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는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신미림 외(2011)는 서울시 1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Mankiw-Weil 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2008년 가계동향조사 자료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정보를 추출·이용하였다. 연구자들은 2030년까지 서울시 1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예측하였다.

신은진 외(2010)는 1인 가구의 거주지 선택영향을 소득 차원에서 연구하였으며, 연구자료는 2006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이다. 구체적으로는 통근거리, 대중교통서비스, 범죄율, 각종 편의시설의 1인당 면적, 주택가격 그리고 주택수와 같은 입지 및 근린환경 특성 요인이 주거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직장과 가까울수록, 범죄율이 낮을수록 거주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철 접근성이 좋을수록 중소득계층이 거주지를 선택할 확률이 높음을 밝혔다.

이창효 외(2010)는 서울시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근린생활권단위(400m×400m)의 주거환경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 1인 가구 유형별 주거환경은 주거환경 평가 세부영역의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상영(2010)은 서울시 1인 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센서스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주거선호보다는 현실에서 드러난 결과를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주거분포 특성을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서울시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가 지역적 특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김옥연 외(2009)는 서울시 1인 가구의 주거실태를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정부차원에서 1인 가구 주택수요를 반영한 정책방안 마련, 둘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해 주거급여대상 확대, 주거비 세금공제, 대체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지원방안 마련, 셋째, 각종 주택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주택정책의 대상에 1인 가구 포함, 넷째, 정부차원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추진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에서는 서울시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를 연구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1인 가구를 다음과 같이 골드세대, 산업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그리고 실버세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2)에서는 서울시 1·2인 가구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주택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1·2인 가구 밀집지역을 5가지 유형(유형 1 ; 20대 1인 가구 중소형 및 월세 가구는 주요 대학 주변에 밀집 거주, 유형 2 ; 30대 1인 가구 중 소형 및 전·월세 가구는 도심 주변, 강남 등 고용중심지에 밀집, 유형 3 ; 고령 1인 가구 중 소형 및 전·월세 가구는 도심 인접 노후 주거지와 구시가지에 밀집, 유형 4 ; 30대 2인 가구 중 소형 및 전·월세 가구는 도심, 강남, 서남권 외곽지역에 밀집, 유형 5 ; 고령 2인 가구 중 소형

및 전·월세 가구는 도심 주변과 강북 외곽지역에 밀집)으로 구분하고, 개선방향 및 정책제언을 하였다. 주요 정책제언을 보면,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3·4인 가구 중심의 현행 주택정책 대상가구 다변화 필요, 고용 중심지 주변 소형·저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주택부치의무제도 도입, 1·2인 가구 밀집 주거지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 방안 수립, 1·2인 가구 유형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 소형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주택규모 조정 및 질적 수준 제고 등이다.

안진화 외(2008)는 젊은 세대 1인 가구의 생활특성과 커뮤니티 공간 및 서비스요구를 연구하였는데, 연구자료는 20-30대 대학생 및 직장인 150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의 하나로서 이웃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젊은 1인 가구들의 주거인식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인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1인 가구용 주택정책 마련이 모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2. 선행연구 검토 및 과제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결과, 1인 가구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구주택센서스, 가구통행실태조사 등과 같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공간적 분포)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두 번째는 특정 1인 가구 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및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유형이 있으며,

세 번째는 기타 연구로서 1인 가구의 주거(주택) 수요, 외국 1인 가구의 주거적 특성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첫 번째 연구적 접근방식과 유사하게 인구주택센서스 등과 같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대전시 1인 가구의 전반적 특성을 고찰하고, 또한 두 번째 연구적 접근인 설문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요구 등을 분석하는 등 종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동향과 더불어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도시환경 변화와 관련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미진한 연구도 주로 서울시를 대상 또는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1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도시)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도시사회 환경여건에 기초하고 있다.



## 제 3 장

---

### 대전시 1인 가구의 실태 진단

---

- 제1절 대도시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여건 비교
  - 제2절 대전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
  - 제3절 대전시 1인 가구의 유형별 특성
-



# 제3장 대전시 1인 가구 실태 진단

## 제1절 대도시 1인 가구 사회·경제적 여건 비교

### 1. 7대도시 1인 가구 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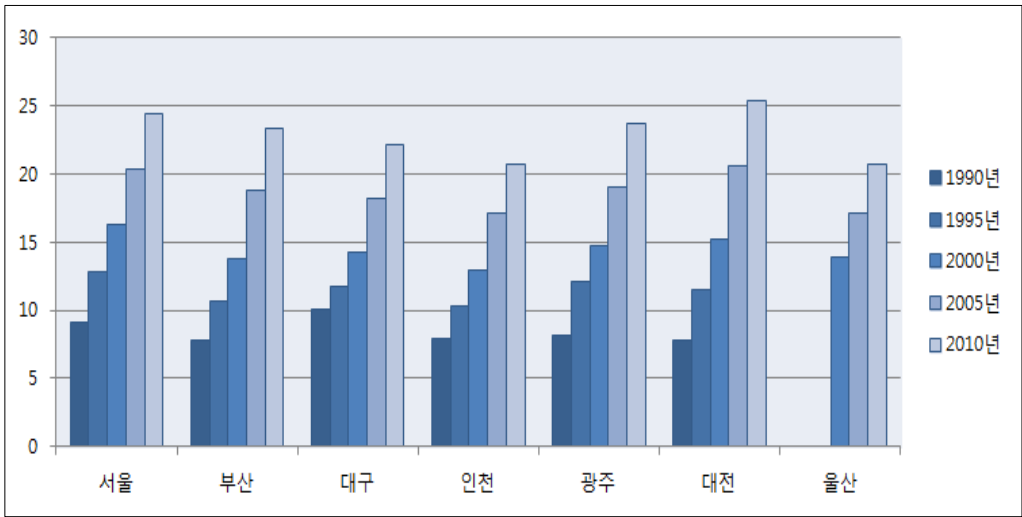
전국 및 7대도시의 1인 가구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의 경우 대구시, 1995년의 경우 서울시, 2005년과 2010년은 대전시 1인 가구의 점유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전시의 1인 가구 점유비중을 보면, 1990년 전체 가구의 7.75%에서, 2000년 15.16%로 증가한 뒤, 2010년의 경우 25.33%로 급증하고 있다.

**[표 3- 1] 전국 및 주요 대도시 1인 가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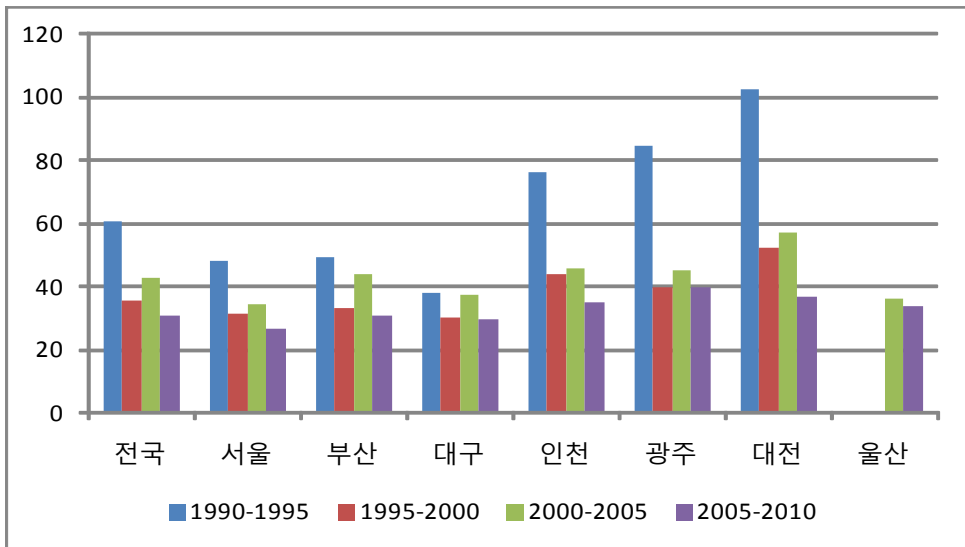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0	전체 가구	11,354,540	2,814,845	993,375	597,150	485,404	287,950	262,193	-
	1인 가구	1,021,481	257,382	77,230	59,890	38,321	23,350	20,327	-
	1인가구비율(%)	9.00	9.14	7.77	10.03	7.89	8.11	7.75	-
	증가율(%)	-	-	-	-	-	-	-	-
1995	전체 가구	12,958,181	2,965,794	1,079,417	703,464	658,818	354,717	357,814	-
	1인 가구	1,642,406	382,024	115,574	82,766	67,546	43,088	41,142	-
	1인가구비율(%)	12.67	12.88	10.71	11.77	10.25	12.15	11.50	-
	증가율(%)	60.79	48.43	49.65	38.20	76.26	84.53	102.40	-
2000	전체 가구	14,311,807	3,085,936	1,120,186	759,351	747,297	408,527	413,758	306,714
	1인 가구	2,224,433	502,245	154,237	107,913	97,127	60,207	62,742	42,532
	1인가구비율(%)	15.54	16.28	13.77	14.21	13.00	14.74	15.16	13.87
	증가율(%)	35.44	31.47	33.45	30.38	43.79	39.73	52.50	-
2005	전체 가구	15,887,128	3,309,890	1,186,378	814,585	823,023	460,090	478,865	339,095
	1인 가구	3,170,675	675,739	222,515	148,331	141,511	87,447	98,678	57,923
	1인가구비율(%)	19.96	20.42	18.76	18.21	17.19	19.01	20.61	17.08
	증가율(%)	42.54	34.54	44.27	37.45	45.70	45.24	57.28	36.19
2010	전체 가구	17,339,422	3,504,297	1,243,880	868,327	918,850	515,855	532,643	373,633
	1인 가구	4,142,165	854,606	290,902	192,472	190,882	122,506	134,938	77,421
	1인가구비율(%)	23.89	24.39	23.39	22.17	20.77	23.75	25.33	20.72
	증가율(%)	30.64	26.47	30.73	29.76	34.89	40.09	36.75	33.6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그림 3- 1] 7대도시 1인 가구 점유비율 변화 추이

한편 대전시의 1인 가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1990-1995년은 102.4%, 1995-2000년은 52.5% 그리고 2000-2005년은 57.28%로 7대 도시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최근인 2005-2010년 증가율은 36.75%로서 광주시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2] 7대도시 1인 가구 증가율 변화 추이



## 2. 대전시와 타대도시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여건 비교

### □ 연령

대전시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1인 가구의 점유비율이 28.3%로서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점유비율을 그리고 대도시 평균값인 21.4%에 비해 약 7%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60대 1인 가구의 점유비율은 9.6%, 70대 1인 가구 점유비율은 8.5% 그리고 80대 이상 1인 가구의 점유비율은 3.2%로서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1인 가구의 점유비율은 19.7%, 40대는 14.5% 그리고 50대는 13.3%로서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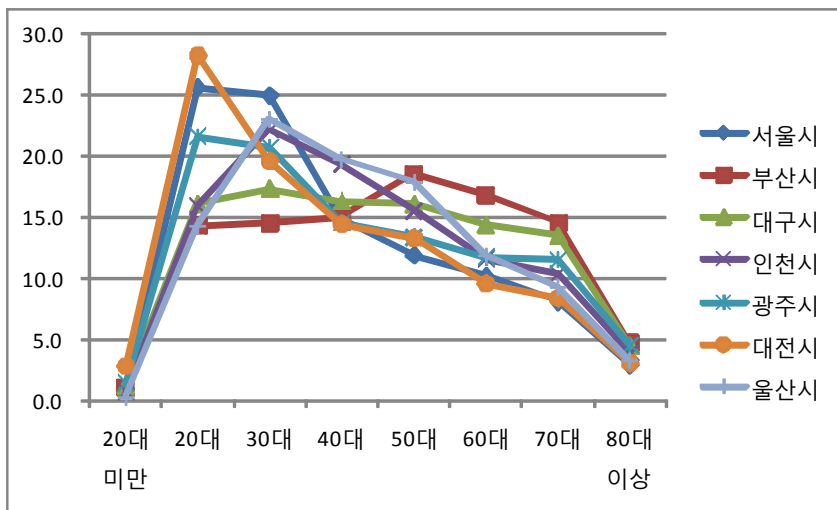
즉 대전시 1인 가구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노령층 비율이 낮고 20대의 젊은 계층이 높은 비교적 젊은 연령구조를 가지고는 있으나, 생산연령층인 30-50대 인구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상으로는 낮으나, 생산적인 구조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20대의 예비 산업인력이 생산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보다 양호한 생산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2] 전국 및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가구수 및 비율**

구분	합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국	4,142,165	48,584	763,073	790,842	628,315	590,721	527,249	562,864	230,517
(%)	100	1.2	18.4	19.1	15.2	14.3	12.7	13.6	5.6
대도시	1,863,727	22,675	398,489	401,746	292,777	265,270	223,541	190,901	68,328
(%)	100	1.2	21.4	21.6	15.7	14.2	12.0	10.2	3.7
서울시	854,606	9,079	219,229	213,731	127,572	102,075	87,839	69,625	25,456
(%)	100	1.1	25.7	25.0	14.9	11.9	10.3	8.1	3.0
부산시	290,902	3,393	41,849	42,361	43,949	54,060	48,982	42,404	13,904
(%)	100	1.2	14.4	14.6	15.1	18.6	16.8	14.6	4.8
대구시	192,472	2,552	31,164	33,480	31,446	31,065	27,813	26,132	8,820
(%)	100	1.3	16.2	17.4	16.3	16.1	14.5	13.6	4.6

인천시	190,882	1,560	30,459	42,332	37,009	29,730	22,255	19,941	7,596
(%)	100	0.8	16.0	22.2	19.4	15.6	11.7	10.4	4.0
광주시	122,506	1,875	26,525	25,417	17,911	16,472	14,484	14,159	5,663
(%)	100	1.5	21.7	20.7	14.6	13.4	11.8	11.6	4.6
<b>대전시</b>	<b>134,938</b>	<b>3,919</b>	<b>38,148</b>	<b>26,561</b>	<b>19,596</b>	<b>18,010</b>	<b>13,003</b>	<b>11,422</b>	<b>4,279</b>
(%)	<b>100</b>	<b>2.9</b>	<b>28.3</b>	<b>19.7</b>	<b>14.5</b>	<b>13.3</b>	<b>9.6</b>	<b>8.5</b>	<b>3.2</b>
울산시	77,421	297	11,115	17,864	15,294	13,858	9,165	7,218	2,610
(%)	100	0.4	14.4	23.1	19.8	17.9	11.8	9.3	3.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그림 3- 3]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분포

### □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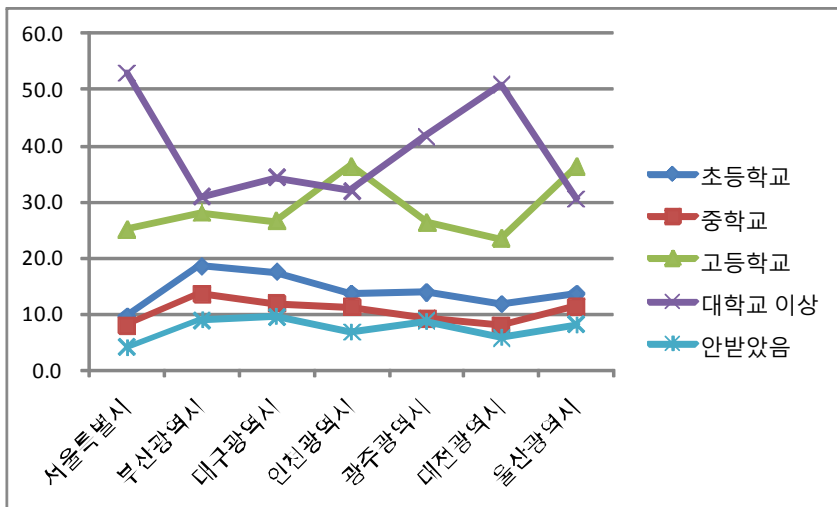
대전시 1인 가구의 교육수준을 타대도시와 비교하면, 초등학교 졸업자의 점유비율이 11.8%로서 대도시 평균(12.9%)보다 낮으며,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경우 50.9%로서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을 받지 않은 1인 가구의 점유비율 역시 5.8%로서 서울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대전시 1인 가구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다른 대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향은 앞서 연령대별 분포에서 살펴보았던 높은 20대 점유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3] 전국 및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교육수준별 가구수 및 비율

구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안받았음
전국	4,142,165	639,893	393,803	1,100,331	1,539,484	468,654
(%)	100	15.4	9.5	26.6	37.2	11.3
대도시	1,863,727	240,329	183,937	508,767	812,878	117,816
(%)	100	12.9	9.9	27.3	43.6	6.3
서울시	854,606	82,748	69,171	214,769	452,338	35,580
(%)	100	9.7	8.1	25.1	52.9	4.2
부산시	290,902	53,997	39,463	81,552	90,033	25,857
(%)	100	18.6	13.6	28.0	30.9	8.9
대구시	192,472	33,806	23,009	51,134	66,202	18,321
(%)	100	17.6	12.0	26.6	34.4	9.5
인천시	190,882	26,224	21,421	69,275	60,923	13,039
(%)	100	13.7	11.2	36.3	31.9	6.8
광주시	122,506	17,038	11,292	32,278	51,051	10,847
(%)	100	13.9	9.2	26.3	41.7	8.9
<b>대전시</b>	<b>134,938</b>	<b>15,945</b>	<b>10,791</b>	<b>31,685</b>	<b>68,666</b>	<b>7,851</b>
<b>(%)</b>	<b>100</b>	<b>11.8</b>	<b>8.0</b>	<b>23.5</b>	<b>50.9</b>	<b>5.8</b>
울산시	77,421	10,571	8,790	28,074	23,665	6,321
(%)	100	13.7	11.4	36.3	30.6	8.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그림 3- 4]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교육수준별 분포

## □ 혼인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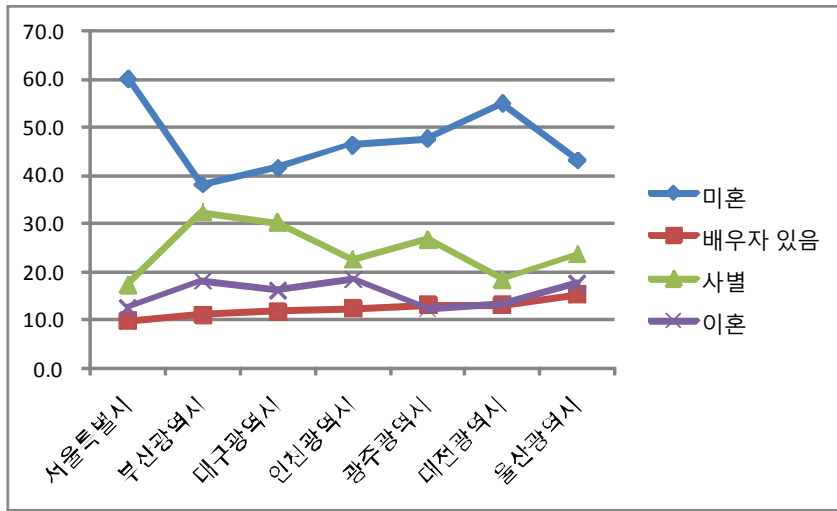
대전시 1인 가구의 혼인상태를 보면, 미혼 점유비율이 55.0%로 서울시(60.1%)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선 연령대별 분포를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사별한 1인 가구의 점유비율은 18.4%로서 역시 서울시(17.4%) 다음으로 낮은 점유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혼 상태의 1인 가구 점유비율은 13.4%로서 전국 평균과 동일하며, 대도시 평균보다는 1.3%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대전시는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젊은 미혼 상태의 1인 가구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의 성향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 4] 전국 및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가구수 및 비율**

구분	합계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전국	4,142,165	1,843,266	534,028	1,208,450	556,421
(%)	100	44.5	12.9	29.2	13.4
대도시	1,863,727	959,932	209,093	420,539	274,163
(%)	100	51.5	11.2	22.6	14.7
서울시	854,606	514,003	84,148	148,928	107,527
(%)	100	60.1	9.8	17.4	12.6
부산시	290,902	111,138	32,544	94,317	52,903
(%)	100	38.2	11.2	32.4	18.2
대구시	192,472	80,082	22,713	58,345	31,332
(%)	100	41.6	11.8	30.3	16.3
인천시	190,882	88,539	23,805	43,118	35,420
(%)	100	46.4	12.5	22.6	18.6
광주시	122,506	58,469	16,188	32,716	15,133
(%)	100	47.7	13.2	26.7	12.4
<b>대전시</b>	<b>134,938</b>	<b>74,226</b>	<b>17,777</b>	<b>24,799</b>	<b>18,136</b>
<b>(%)</b>	<b>100</b>	<b>55.0</b>	<b>13.2</b>	<b>18.4</b>	<b>13.4</b>
울산시	77,421	33,475	11,918	18,316	13,712
(%)	100	43.2	15.4	23.7	17.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그림 3- 5]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 □ 직업

대전시 1인 가구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전문가가 전체 1인 가구의 26.3%로서 점유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사무종사자가 16.2%, 서비스업종사자 13.6% 그리고 판매업종사자가 13.1%인 순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직업분포를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면, 전문가의 점유비율은 서울시(29.3%) 다음으로 높고 대도시 평균(24.1%) 보다 2.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시 1인 가구 중 관리자 직업을 보유한 사람은 2.7%로서 서울시와 동일하게 7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사무직종의 경우도 서울시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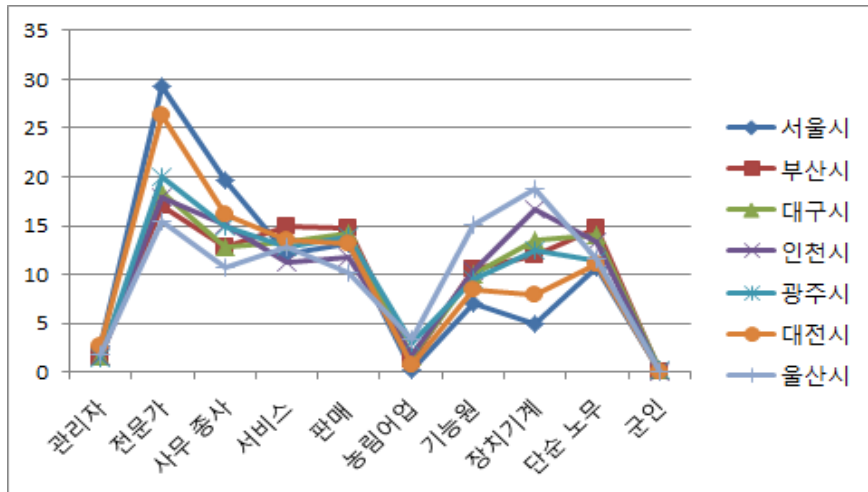
한편 기능원의 점유비율은 8.4%로서 대도시 평균(8.8%) 보다 낮고, 단순노무의 경우도 11.0%로서 서울시(10.8%)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포를 토대로 볼 때, 대전시 1인 가구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직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5] 전국 및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직업별 가구수 및 비율

구분	합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기능원	장치 기계	단순 노무	군인
전국	2341387	47742	477030	335859	274044	259891	190095	200377	266412	284525	5412
(%)	100.0	2.0	20.4	14.3	11.7	11.1	8.1	8.6	11.4	12.2	0.2
대도시	1052801	23656	254068	175782	133531	139055	10324	92332	96950	126165	938
(%)	100.0	2.2	24.1	16.7	12.7	13.2	1.0	8.8	9.2	12.0	0.1
서울시	523220	14062	153485	102377	63508	68992	813	37260	25728	56747	248
(%)	100.0	2.7	29.3	19.6	12.1	13.2	0.2	7.1	4.9	10.8	0.0
부산시	133962	2252	22934	17173	20072	19846	1759	14014	15978	19772	162
(%)	100.0	1.7	17.1	12.8	15.0	14.8	1.3	10.5	11.9	14.8	0.1
대구시	93144	1527	17111	11901	12427	13184	1588	9364	12714	13125	203
(%)	100.0	1.6	18.4	12.8	13.3	14.2	1.7	10.1	13.6	14.1	0.2
인천시	115025	2009	20594	17366	12890	13447	2093	11874	19254	15371	127
(%)	100.0	1.7	17.9	15.1	11.2	11.7	1.8	10.3	16.7	13.4	0.1
광주시	63501	946	12706	9547	8153	8803	1934	6044	7964	7241	163
(%)	100.0	1.5	20.0	15.0	12.8	13.9	3.0	9.5	12.5	11.4	0.3
대전시	74149	1982	19521	12027	10056	9705	496	6255	5940	8141	26
(%)	100.0	2.7	26.3	16.2	13.6	13.1	0.7	8.4	8.0	11.0	0.0
울산시	49800	878	7717	5391	6425	5078	1641	7521	9372	5768	9
(%)	100.0	1.8	15.5	10.8	12.9	10.2	3.3	15.1	18.8	11.6	0.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그림 3- 6]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직업별 분포

## □ 점유형태

대전시 1인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보증금 있는 월세'가 전체의 47.1%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자기집과 전세(월세 없음)가 각각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없는 월세는 4.7%, 사글세는 3.3%, 무상은 3.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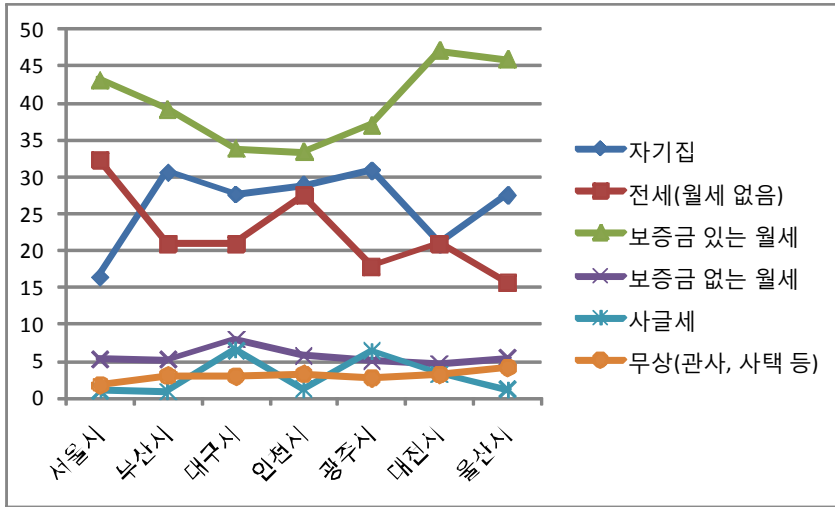
이와 같은 대전시 1인 가구의 점유형태를 타대도시와 비교하면, 보증금 있는 월세의 점유비율이 7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가(자기집) 점유비율은 서울시(16.4%)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점유형태에서 전세비율은 광주시와 울산시에 비교해서는 높고, 부산시 및 대구시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즉 대전시 1인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는 월세가 우세하고 자가가 낮은 구성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표 3- 6] 전국 및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점유형태별 가구수 및 비율**

구분	합계	자기집	전세(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관사, 사택 등)
전국	4,142,165	1,322,637	902,905	1,426,296	210,059	123,727	156,541
(%)	100	31.9	21.8	34.4	5.1	3.0	3.8
대도시	1,864,327	425,443	491,807	755,764	103,627	40,168	47,517
(%)	100	22.8	26.4	40.5	5.6	2.2	2.5
서울시	854,606	140,491	275,726	368,127	45,110	9,648	15,504
(%)	100	16.4	32.3	43.1	5.3	1.1	1.8
부산시	290,902	89,142	61,037	114,069	15,073	2,538	9,043
(%)	100	30.6	21.0	39.2	5.2	0.9	3.1
대구시	192,472	53,206	40,487	65,105	15,372	12,565	5,737
(%)	100	27.6	21.0	33.8	8.0	6.5	3.0
인천시	190,882	55,127	52,339	63,804	11,163	2,205	6,244
(%)	100	28.9	27.4	33.4	5.8	1.2	3.3
광주시	122,506	37,841	21,814	45,330	6,243	7,846	3,432
(%)	100	30.9	17.8	37.0	5.1	6.4	2.8
<b>대전시</b>	<b>134,938</b>	<b>28,200</b>	<b>28,153</b>	<b>63,531</b>	<b>6,358</b>	<b>4,416</b>	<b>4,280</b>
<b>(%)</b>	<b>100</b>	<b>20.9</b>	<b>20.9</b>	<b>47.1</b>	<b>4.7</b>	<b>3.3</b>	<b>3.2</b>
울산시	77,421	21,281	12,111	35,564	4,274	931	3,260
(%)	100	27.5	15.6	45.9	5.5	1.2	4.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그림 3- 7]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점유형태별 분포

### □ 거처의 종류

대전시 1인 가구의 거처유형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절대적으로 높은 6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27.9%, 다세대주택은 4.1%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주택 이외의 거처는 3.5%이다.

이와 같은 거처의 종류별 점유비율을 타대도시와 비교하면, 단독주택 점유비율은 대구시(65.3%)나 울산시(64.7%) 다음으로 높은 상태이며, 아파트 점유비율은 광주시(39.4%), 부산시(29.8%), 대구시(28.3%) 다음의 순위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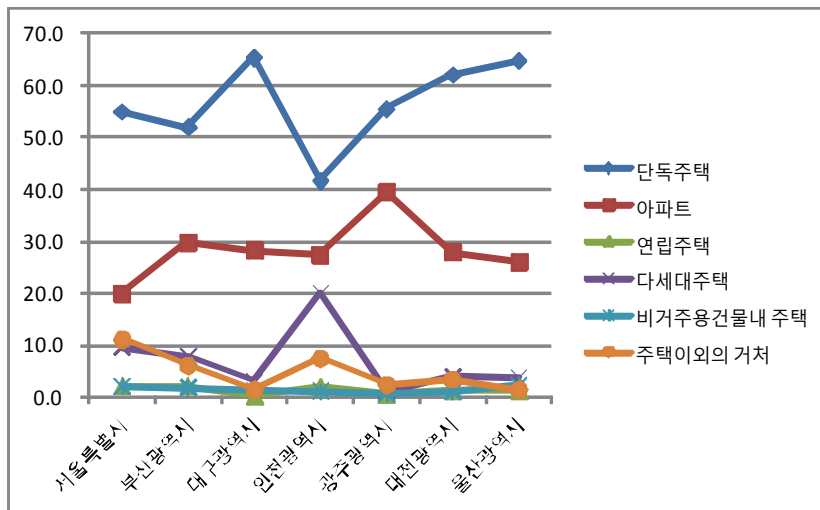
대전시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여 특이한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7] 전국 및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거처 종류별 가구수 및 비율

구분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전국	4,142,165	2,459,701	1,056,822	82,651	235,070	69,015	238,906
(%)	100	59.4	25.5	2.0	5.7	1.7	5.8
대도시평균	1,863,727	1,026,715	470,079	32,935	160,272	34,111	139,615
(%)	100	55.1	25.2	1.8	8.6	1.8	7.5
서울시	854,606	468,885	170,339	18,489	83,065	18,490	95,338
(%)	100	54.9	19.9	2.2	9.7	2.2	11.2
부산시	290,902	151,175	86,826	6,375	23,021	5,668	17,837
(%)	100	52.0	29.8	2.2	7.9	1.9	6.1
대구시	192,472	125,687	54,416	613	5,871	2,824	3,061
(%)	100	65.3	28.3	0.3	3.1	1.5	1.6
인천시	190,882	79,407	52,457	3,808	38,401	2,388	14,421
(%)	100	41.6	27.5	2.0	20.1	1.3	7.6
광주시	122,506	67,863	48,209	792	1,472	1,131	3,039
(%)	100	55.4	39.4	0.6	1.2	0.9	2.5
<b>대전시</b>	<b>134,938</b>	<b>83,624</b>	<b>37,610</b>	<b>1,778</b>	<b>5,467</b>	<b>1,719</b>	<b>4,740</b>
<b>(%)</b>	<b>100</b>	<b>62.0</b>	<b>27.9</b>	<b>1.3</b>	<b>4.1</b>	<b>1.3</b>	<b>3.5</b>
울산시	77,421	50,074	20,222	1,080	2,975	1,891	1,179
(%)	100	64.7	26.1	1.4	3.8	2.4	1.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그림 3- 8] 주요 대도시 1인 가구의 거처종류별 분포

## 제2절 대전시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

### 1. 대전시 1인 가구의 규모 변화 및 공간적 분포

#### 1) 대전시 1인 가구 규모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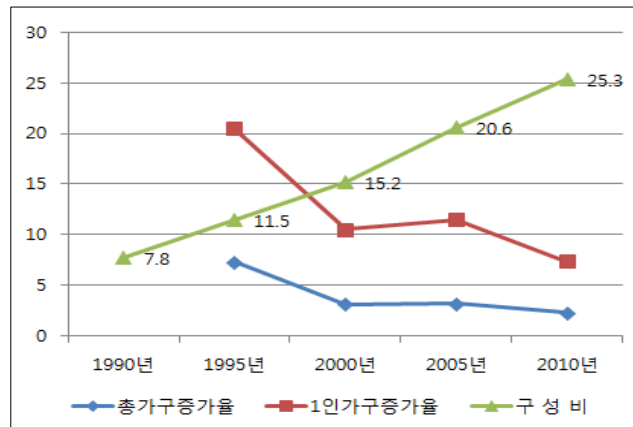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대전시 1인 가구의 규모변화는 [표 3- 8]과 같다.

대전시 1인 가구는 1990년 20,327가구에서 2010년 134,938가구로 20년간 연평균 28.2%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에 따라 총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전체 가구의 7.8%에서 2010년 25.3%로 지난 20년간 17.5% 증가하였다.

[표 3- 8] 대전시 1인 가구 규모 변화 추이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990-2010년 변화(율)
총 가구수	262,193	357,814	413,758	478,865	532,643	270,450
총 가구 증가율(%)	-	7.3	3.1	3.1	2.2	5.2
1인 가구	20,327	41,142	62,742	98,678	134,938	114,611
1인 가구 증가율(%)	-	20.5	10.5	11.5	7.3	28.2
구성 비율(%)	7.8	11.5	15.2	20.6	25.3	17.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그림 3- 9] 대전시 1인 가구 증가율 및 구성비 변화

## 2) 5개 구청별 1인 가구 규모의 변화 추이

2010년 기준 대전시 5개 구(區) 중 서구에 44,614가구가 거주하여 가장 많으며, 다음은 동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순으로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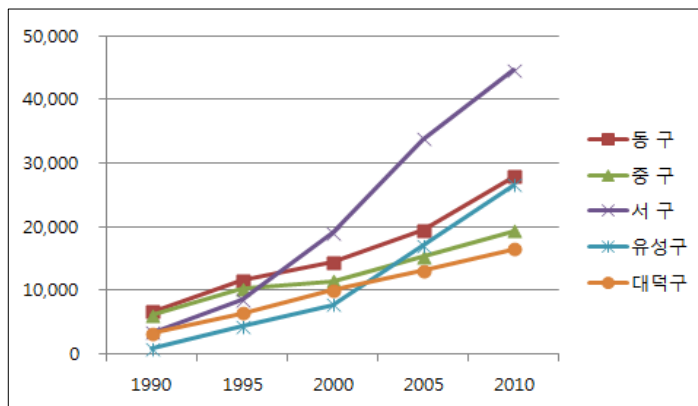
지난 20년간 1인 가구 증가를 살펴보면, 유성구가 연평균 146.1%의 증가율로 가장 급속한 증가를 보였으며, 다음은 서구가 60.9%로 이 두 지역에서 집중적인 1인 가구 증가가 진행되었다.

동구에 1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학생과 노인들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중구의 1인 가구 증가율은 5개 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9] 대전시 5개 구청별 1인 가구 변화 추이**

구 분	대 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1990년	20,327	6,648	6,142	3,387	879	3,271
1995년	41,142	11,619	10,236	8,523	4,339	6,425
2000년	62,742	14,415	11,495	19,052	7,752	10,028
2005년	98,678	19,474	15,313	33,766	17,001	13,124
2010년	134,938	27,916	19,306	44,614	26,555	16,547
연평균 증가율(%)	28.2	16.0	10.7	60.9	146.1	20.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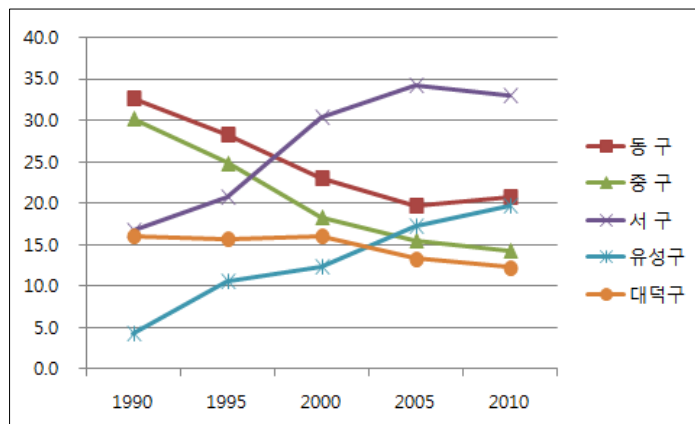
**[그림 3-10] 대전시 구별 1인 가구 규모 변화**

한편 대전시 1인 가구에 대한 5개 구의 점유비율을 도출하면 [표 3-10]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와 유성구에서의 급속한 1인 가구증가로 인해 2010년 서구는 대전시 1인 가구의 33.1%, 유성구는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 32.7%의 점유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동구는 2010년 20.7%로 점유비율이 감소하였다. 2010년 중구의 점유비율은 14.3%로 1990년의 절반 수준이며, 대덕구는 12.3%이다.

지난 20년간 1인 가구 점유비율의 변화를 보면, 서구는 16.4%, 유성구는 15.4% 증가하였으며, 중구는 15.9%, 동구는 12.0% 그리고 대덕구는 3.8% 감소하였다.

**[표 3-10] 대전시 5개 구별 1인 가구 점유비율**

구 분	대 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1990	100.0	32.7	30.2	16.7	4.3	16.1
1995	100.0	28.2	24.9	20.7	10.5	15.6
2000	100.0	23.0	18.3	30.4	12.4	16.0
2005	100.0	19.7	15.5	34.2	17.2	13.3
2010	100.0	20.7	14.3	33.1	19.7	12.3
점유비율변화	-	-12.0	-15.9	16.4	15.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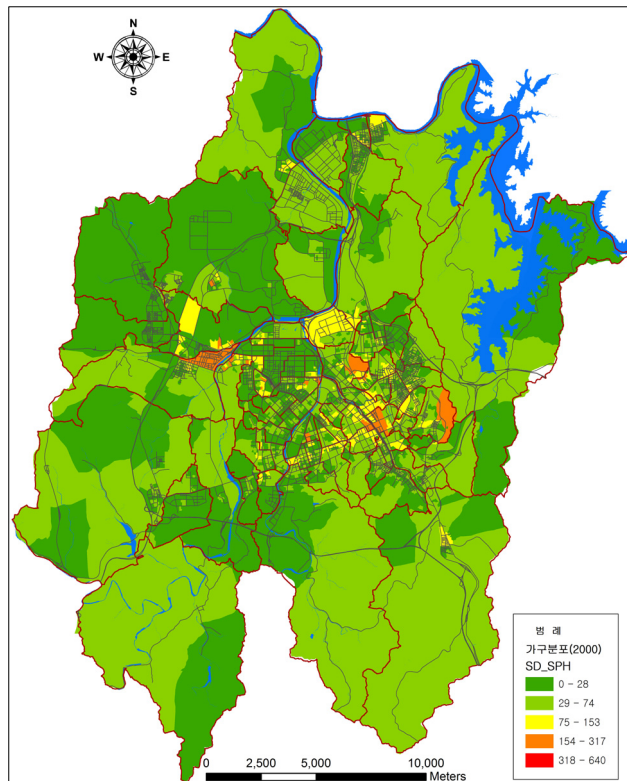
**[그림 3-11] 대전시 5개 구별 1인 가구의 점유비율 변화**

### 3) 공간적 분포 변화

#### □ 2000년

2000년 대전시 1인 가구의 동별 분포는 [그림 3-12]와 같다. 1인 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원도심 지역(대전역 인근), 동구 용운동 대전대학교 인근,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학교 인근, 유성구 온천지역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전산업단지(1, 2 산업단지)와 충남대학교 서측지역도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전시 1인 가구는 앞서 검토된 바와 같이,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인접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도심 지역에서의 분포는 고령자 거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12] 2000년 대전시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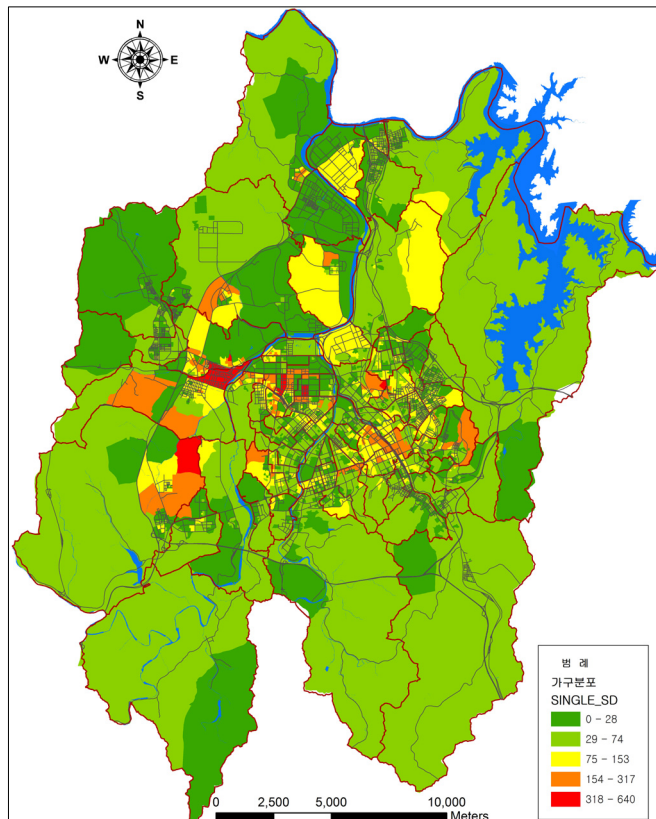
## □ 2005년

2005년 대전시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는 [그림 3-13]과 같다. 2005년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0년에 비해 폭넓은 1인 가구의 공간적 확장을 살펴볼 수 있다.

원도심지역의 경우, 2000년 대전역 인근지역에서 선화동 지역으로 1인 가구 밀집 지역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둔산 신도심 지역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유성구의 경우 도안 신도시 지역에서의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한밭대학교 인근지역에서도 1인 가구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전 3, 4 산업단지에서의 1인 가구 증가도 인지할 수 있다.

즉 2000년에 비해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가 공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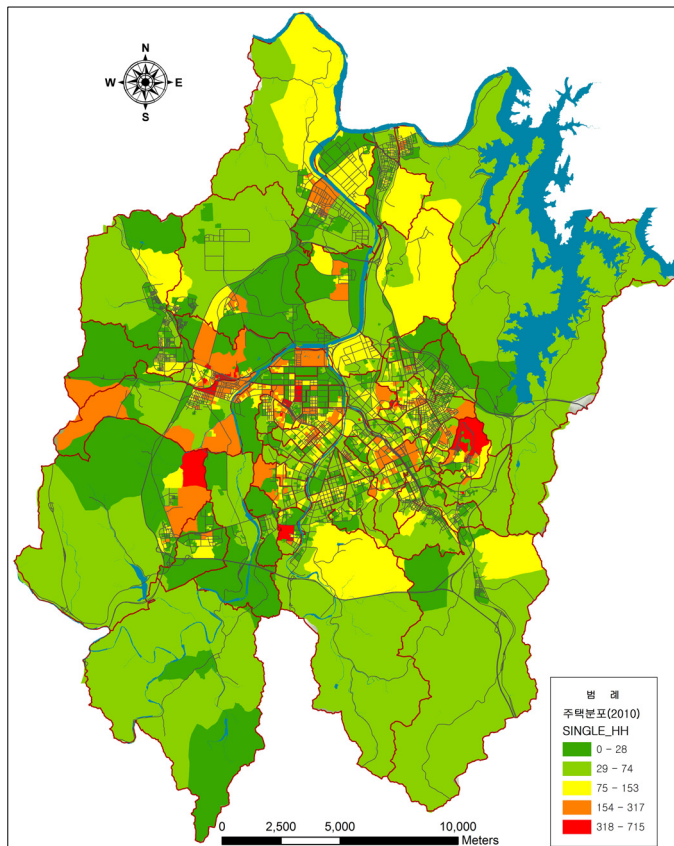


[그림 3-13] 2005년 대전시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 □ 2010년

2010년 대전시 1인 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과 비교하여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가 보다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0년과 2005년 등을 지나면서 형성된 1인 가구 분포지역들이 보다 밀도가 강화되고, 일부 지역의 경우 공간적 확산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둔산과 원도심 지역에서는 1인 가구 밀도증가가 이루어지고, 유성 등 외곽지역에서는 1인 가구의 지속적인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3-14] 2010년 대전시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 2. 대전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여건 비교

### 1) 조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에서 실시한 '2011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에 기초하여, 대전시 가구유형별(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사회 및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대전시 1인 가구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2011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5일간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만 15세 이상 상주 가구로 표본수는 5천 가구(가구주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5천 가구 중 7매를 제외한 4,993매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주요 내용은 가구별 교육, 혼인, 직장 등과 같은 사회적 특성과 거주지 종류와 점유형태 등과 같은 주거여건 그리고 생활만족도 등이다. 분석방법은 가구 유형별 사회 및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프로그램은 SPSS 12버전이다.

### 2) 분석 결과

#### □ 교육정도

대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유형별 가구주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대학 및 대학교 졸업이 45.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고등학교 졸업이 30.1%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 졸업자 비율은 6.9%이며, 초등학교 졸업자 비율은 12.0%이다.

이와 같은 가구주의 교육정도를 타가구와 비교하면, 대학 및 대학교 졸업비율은 4인 이상 가구의 비율 47.9%에 비해 낮으나 2인 가구나 3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 가구의 무학 비율은 4.7%로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졸업 비율 역시 12.0%로서 2인 가구와 유사하나 3인 가구나 4인 이상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 석사나 박사 비율 역시



각각 0.7%와 0.1%로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전시 1인 가구는 고학력과 저학력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시민(가구주)의 교육정도가 가구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표 3-11] 대전시 가구 유형별 가구주의 교육정도**

구 분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교육 정 도	무학	빈도	64	33	5	5	107	297.729	21	0.000
		%	4.7	2.6	0.5	0.4	2.1			
	초등학교	빈도	164	155	55	45	419			
		%	12.0	12.0	5.5	3.4	8.4			
	중학교	빈도	95	142	76	62	375			
		%	6.9	11.0	7.7	4.6	7.5			
	고등학교	빈도	412	411	379	514	1,716			
		%	30.1	31.8	38.2	38.4	34.4			
	대학	빈도	174	147	139	157	617			
		%	12.7	11.4	14.0	11.7	12.4			
	대학교	빈도	449	376	304	485	1,614			
		%	32.8	29.1	30.6	36.2	32.3			
	대학원석사	빈도	10	25	20	55	110			
		%	0.7	1.9	2.0	4.1	2.2			
대학원박사	빈도	1	3	14	17	35				
	%	0.1	0.2	1.4	1.3	0.7				
전체	빈도	1,369	1,292	992	1,340	4,993				
	%	100.0	100.0	100.0	100.0	100.0				

**□ 혼인관계**

대전시 1인 가구 가구주의 혼인관계를 보면, 미혼이 전체 가구의 57.2%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사별이 23.6%, 이혼이 16.3% 그리고 배우자 있음이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구의 이혼 비율을 살펴보면, 2인 가구는 8.8%, 3인 가구는 5.8%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1.4%로 나타났다.

즉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사별과 이혼의 점유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대전시 가구 유형별 가구주의 혼인관계

구 분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혼 인 관 계	미혼	빈도	783	95	26	8	912	3,321.790	9	0.000
		%	57.2	7.4	2.6	0.6	18.3			
	배우자 있음	빈도	40	999	860	1,294	3,193			
		%	2.9	77.3	86.7	96.6	63.9			
	사별	빈도	323	84	48	19	474			
		%	23.6	6.5	4.8	1.4	9.5			
	이혼	빈도	223	114	58	19	414			
		%	16.3	8.8	5.8	1.4	8.3			
전체		빈도	1,369	1,292	992	1,340	4,993			
		%	100.0	100.0	100.0	100.0	100.0			

□ 직업 유무 및 직장

대전시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직장유무를 살펴보면 [표 3-13]과 같다.

1인 가구 중 직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68.7%로 2인 가구 74.5%, 3인 가구 83.4% 그리고 4인 이상 가구 88.4%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인 이상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취업률은 약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1인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통계적으로 볼 때, 취업률은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대전시 가구 유형별 가구주의 취업여부

구 분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직장 유무	있다	빈도	941	963	827	1,184	3,915	179.868	3	0.000
		%	68.7	74.5	83.4	88.4	78.4			
	없다	빈도	428	329	165	156	1,078			
		%	31.3	25.5	16.6	11.6	21.6			
전체		빈도	1,369	1,292	992	1,340	4,993			
		%	100.0	100.0	100.0	100.0	100.0			

대전시 가구유형별 직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서비스업 종사자가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사무종사자로서 19.2%를 차지한다. 또한 주부는 14.1%, 학생은 10.7%이다.

이와 같은 직업유형을 다른 가구와 비교하면, 1인 가구의 관리자나 전문가 그리고 사무종사자 비율이 다른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에서 살펴본 학생과 주부의 점유비율은 다른 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분석 결과로부터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고급'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4] 대전시 가구 유형별 가구주의 직장유형**

구 분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직 장 종 류	관리자	빈도 18	34	33	82	167	666.315	36	0.000
		% 1.3	2.6	3.3	6.1	3.3			
	전문가	빈도 63	67	81	159	370			
		% 4.6	5.2	8.2	11.9	7.4			
	사무종사	빈도 263	300	238	366	1,167			
		% 19.2	23.2	24.0	27.3	23.4			
	서비스	빈도 279	215	168	214	876			
		% 20.4	16.7	16.9	16.0	17.5			
	판매종사	빈도 113	110	90	117	430			
		% 8.3	8.5	9.1	8.7	8.6			
	농림어업	빈도 5	25	11	13	54			
		% 0.4	1.9	1.1	1.0	1.1			
	기능원	빈도 71	75	99	102	347			
		% 5.2	5.8	10.0	7.6	7.0			
	장치기계	빈도 46	47	44	65	202			
		% 3.4	3.6	4.4	4.9	4.0			
	단순노무	빈도 83	81	55	60	279			
		% 6.1	6.3	5.5	4.5	5.6			
	군인	빈도 0	9	8	6	23			
	% 0.0	0.7	0.8	0.4	0.5				
학생	빈도 146	18	3	0	167				
	% 10.7	1.4	0.3	0.0	3.3				
주부	빈도 193	99	80	95	467				
	% 14.1	7.7	8.1	7.1	9.4				
무직	빈도 89	211	82	61	443				
	% 6.5	16.3	8.3	4.6	8.9				
전체	빈도 1,369	1,291	992	1,340	4,992				
	% 100.0	100.0	100.0	100.0	100.0				

□ 월소득

가구유형별 월소득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의 점유비율이 47.4%로서 가장 높으며, 다음은 200-300만원 미만이 17.7%이고, 50-100만원은 16.9%, 50만원 미만은 15.2%이다.

1인 가구의 월소득분포를 다른 가구와 비교하면, 2인이나 3인 가구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의 점유비율이 가장 높고,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300-400만원 미만의 점유비율이 37.2%로 가장 높다. 반면 1인 가구의 50만원 미만 점유비율은 다른 가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1인 가구의 월소득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구성원이 많을수록 소득이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5] 대전시 가구 유형별 월소득

구 분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월 소 득	50만원 미만	빈도	208	58	3	3	272	2140.137	24	0.000
		%	15.2	4.5	0.3	0.2	5.4			
	100만원 미만	빈도	232	148	31	4	415			
		%	16.9	11.5	3.1	0.3	8.3			
	200만원 미만	빈도	649	315	158	95	1,217			
		%	47.4	24.4	15.9	7.1	24.4			
	300만원 미만	빈도	242	365	359	312	1,278			
		%	17.7	28.3	36.2	23.3	25.6			
	400만원 미만	빈도	23	313	264	499	1,099			
		%	1.7	24.2	26.6	37.2	22.0			
	500만원 미만	빈도	9	68	116	255	448			
		%	0.7	5.3	11.7	19.0	9.0			
	600만원 미만	빈도	5	11	35	105	156			
		%	0.4	0.9	3.5	7.8	3.1			
	700만원 미만	빈도	0	5	12	40	57			
		%	0.0	0.4	1.2	3.0	1.1			
	700만원 이상	빈도	1	9	14	27	51			
		%	0.1	0.7	1.4	2.0	1.0			
전체	빈도	1,369	1,292	992	1,340	4,993				
	%	100.0	100.0	100.0	100.0	100.0				

## □ 거처의 종류

대전시 1인 가구의 거처 종류를 보면, 단독주택이 전체의 55.3%로 절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고, 다음은 아파트가 27.2%, 다세대주택이 10.5%, 연립주택이 5.9%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가구유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1인 가구유형은 2인 가구에 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18.1% 높은 등 다른 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다세대주택 거주비율이 타가구에 비해 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시 가구는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유형의 점유비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6] 대전시 가구 유형별 거처의 종류

구 분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거 처 종 류	단독주택	빈도	757	481	307	335	1,880	517.686	12	0.000
		%	55.3	37.2	30.9	25.0	37.7			
	아파트	빈도	373	701	608	907	2,589			
		%	27.2	54.3	61.3	67.7	51.9			
	연립주택	빈도	81	39	24	33	177			
		%	5.9	3.0	2.4	2.5	3.5			
	다세대주택	빈도	144	62	52	61	319			
		%	10.5	4.8	5.2	4.6	6.4			
	기타	빈도	14	9	1	4	28			
		%	1.0	0.7	0.1	0.3	0.6			
전체	빈도	1,369	1,292	992	1,340	4,993				
	%	100.0	100.0	100.0	100.0	100.0				

## □ 점유형태

대전시 1인 가구의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보증부 월세가 43.8%로 가장 높으며, 자기집 즉 자가가 24.0%, 전세가 16.3% 그리고 월세가 14.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유형태별 비율은 타가구와 비교하면, 1인 가구는 자가비율이 다른 가구에 비해 25%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증부 월세나 월세(사글세) 비율이 타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1인 가구의 월세비율이 높은 것은 비단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가구의 규모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거처인 월세 유형을 선호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추측된다.

[표 3-17] 대전시 가구 유형별 점유형태

구 분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점 유 형 태	자기집	빈도	328	643	569	979	2,519	1007.687	12	0.000
		%	24.0	49.8	57.4	73.1	50.5			
	전세	빈도	223	313	225	212	973			
		%	16.3	24.2	22.7	15.8	19.5			
	보증부 월세	빈도	600	264	157	106	1,127			
		%	43.8	20.4	15.8	7.9	22.6			
	월세 (사글세)	빈도	195	61	23	31	310			
		%	14.2	4.7	2.3	2.3	6.2			
	무상	빈도	23	11	18	12	64			
		%	1.7	0.9	1.8	0.9	1.3			
전체	빈도	1,369	1,292	992	1,340	4,993				
	%	100.0	100.0	100.0	100.0	100.0				

### □ 행복지수

대전시 가구의 행복지수(0점-10점)를 조사한 결과, 1인 가구의 경우 6점대가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7점대가 27.0%, 8점대가 16.4%, 5점대가 1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행복지수를 다른 가구유형과 비교하여 보면, 2인 가구와 4인 이상 가구는 7점대 점유비율이 각각 26.5%와 30.1%로 가장 높고, 3인 가구의 경우 8점대 점유비율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유형별 행복지수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1인 가구는 6.4점, 2인 가구는 7.0점, 3인 가구는 7.1점 그리고 4인 가구는 7.2점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대전시 가구 유형별 행복지수

구 분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행 복 지 수	0점	빈도	6	6	0	1	13	268.565	30	0.000
		%	0.4	0.5	0.0	0.1	0.3			
	1점	빈도	6	5	3	6	20			
		%	0.4	0.4	0.3	0.4	0.4			
	2점	빈도	15	6	5	9	35			
		%	1.1	0.5	0.5	0.7	0.7			
	3점	빈도	39	15	10	12	76			
		%	2.8	1.2	1.0	0.9	1.5			
	4점	빈도	56	26	22	21	125			
		%	4.1	2.0	2.2	1.6	2.5			
	5점	빈도	189	134	92	109	524			
		%	13.8	10.4	9.3	8.1	10.5			
	6점	빈도	379	248	157	206	990			
		%	27.7	19.2	15.8	15.4	19.8			
	7점	빈도	370	342	275	403	1,390			
		%	27.0	26.5	27.7	30.1	27.8			
	8점	빈도	225	308	305	375	1,213			
		%	16.4	23.8	30.7	28.0	24.3			
	9점	빈도	56	151	90	140	437			
		%	4.1	11.7	9.1	10.4	8.8			
10점	빈도	28	51	33	58	170				
	%	2.0	3.9	3.3	4.3	3.4				
전체		빈도	1,369	1,292	992	1,340	4,993			
		%	100.0	100.0	100.0	100.0	100.0			

### 제3절 대전시 1인 가구의 유형별 특성 : 설문조사

#### 1. 조사의 개요 및 일반적 특성

##### 1) 조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2011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를 보완하여, 대전시 1인 가구의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일정한 교육을 받는 전문 조사원이 실시하였으며, 2012년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8일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총 조사매수는 406매이다.

분석 프로그램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2버전이며, 조사항목별 빈도분석과 함께 1인 가구를 연령에 따라 20대, 30-50대 그리고 60대 이상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연령대 유형별 주거실태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sup>8)</sup>. 또한 1인 가구의 주거선정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AHP 분석<sup>9)</sup>을 실시하였다.

##### 2) 조사의 내용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인 가구 형성요인

- 1인 가구를 형성하게 된 계기, 혼자 생활한 기간, 향후 계속 혼자 생활할지 여부

###### ○ 주거실태

- 현 주거유형, 현 주택 소유형태, 현 주택규모, 주거환경 개선점, 1인 가구로서 만족도

---

8) 앞서 선행연구에서 보면,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1인 가구의 경우 연령대별 경제, 사회적 여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9) AHP 분석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내용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신뢰도가 있는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 주거환경 만족도

- 주택구조 및 시설, 근린의식, 접근성, 주변환경 및 시설, 경제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종합만족도

○ 주거선택 요건의 중요도

- 입지요인(교통편리성, 주변 교육·상업시설의 접근성, 직장·학교까지 거리)
- 주택요인(주택규모 및 마감재, 주택의 채광과 통풍 등, 주차시설 확보수준)
- 사회경제요인(주택가격(임대료), 월유지·관리비, 동네·아파트의 인지도(평판))

### 3) 일반적 특성

이 조사를 위한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3-19]와 같다.

설문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188명(46.3%)이며 여자는 218명(53.7%)이다. 연령은 20대가 106명 26.1%이며, 30대와 40대는 25명 6.2%이며, 50대는 31명으로 7.6%, 60대는 69명으로 17.0% 그리고 70대 이상은 150명으로 36.9%를 차지한다.

학력 측면에서 보면, 초등학교 졸업은 143명 35.2%를 차지하며, 중학교 졸업은 56명으로 13.8%, 고등학교 졸업은 150명 36.9% 그리고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57명으로 14.0%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에서는 개인사업이 21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서비스업은 45명 11.1%, 학생은 82명으로 20.2%를 차지하며, 주부는 93명으로 22.9%, 무직은 101명으로 24.9% 그리고 기타는 51명으로 12.6%이다.

자동차 보유는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334명으로 82.3%이고, 있다는 응답자는 72명으로 17.7%이다.

주요 출근·통근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52명으로 12.8%, 버스 40명 9.9% 그리고 도보는 99명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다.

월소득은 50만원 미만이 218명 53.7%, 1백만원 미만은 67명으로 16.5%, 3백만원 미만은 100명 24.6% 그리고 3백만원 이상은 21명으로 5.2%이다.

응답자의 거주지는 중구 70명으로 17.2%, 동구 94명 23.2%, 서구 94명 23.2%, 유성구 78명 19.2% 그리고 대덕구 70명 17.2%이다.

[표 3-19]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설문응답자 구성									
성별	남자					여자			합계	
	188					218			406	
	(46.3%)					(53.7%)			(10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106	25	25	31	69	150	406			
	(26.1%)	(6.2%)	(6.2%)	(7.6%)	(17.0%)	(36.9%)	(100%)			
결혼 여부	미혼		기혼			이혼 및 사별		합계		
	140		36			230		406		
	(34.5%)		(8.9%)			(56.7%)		(1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 졸업		합계	
	143		56		150		57		406	
	(35.2%)		(13.8%)		(36.9%)		(14.0%)		(100%)	
직업	개인사업	전문직	서비스	농어업	공무원권인	학생	기타	주부	무직	합계
	21	5	45	1	7	82	51	93	101	406
	(5.2%)	(1.2%)	(11.1%)	(0.2%)	(1.7%)	(20.2%)	(12.6%)	(22.9%)	(24.9%)	(100%)
직장 위치	무응답	대전시						기타 (서울시)	합계	
		합계	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194	211	30	32	59	42	48	1	406	
	(47.8%)	(52.0%)	(7.4%)	(7.9%)	(14.5%)	(10.3%)	(11.8%)	(0.2%)	(100%)	
차량보유 여부	없음				있음			합계		
	334				72			406		
	(82.3%)				(17.7%)			(100%)		
주요 출근교통수단	무응답	자가용	버스	전철	자전거	도보	택시	기타	합계	
	194	52	40	3	9	99	3	6	406	
	(47.8%)	(12.8%)	(9.9%)	(0.7%)	(2.2%)	(24.4%)	(0.7%)	(1.5%)	(100%)	
월수입	50만원미만	1백만원미만	3백만원미만	5백만원미만	7백만원미만	1천만원미만	천만원이상	합계		
	218	67	100	15	3	2	1	406		
	(53.7%)	(16.5%)	(24.6%)	(3.7%)	(0.7%)	(0.5%)	(0.2%)	(100%)		
자산(부채 제외)	천만원미만	3천만원미만	5천만원미만	1억원미만	3억원미만	5억원미만	5억원이상	합계		
	174	55	31	40	69	24	13	406		
	(42.9%)	(13.5%)	(7.6%)	(9.9%)	(17.0%)	(5.9%)	(3.2%)	(100%)		
거주지	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합계
	70		94		94		78		70	406
	(17.2%)		(23.2%)		(23.2%)		(19.2%)		(17.2%)	(100%)

## 2. 조사 결과

### 1) 1인 가구 형성 요인 및 사회·경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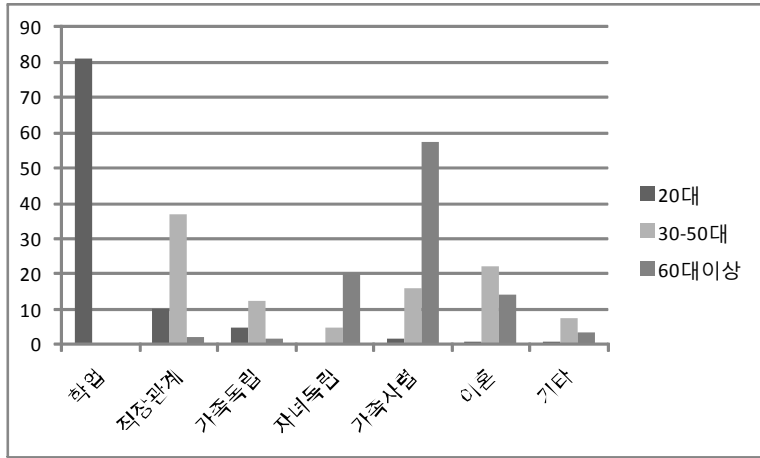
#### □ 1인 가구 형성 계기

연령대별 1인 가구의 형성계기를 살펴본 결과, 20대 1인 가구는 학업에 의해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81.1%로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0-50대 1인 가구는 직장관계로 인한 1인 가구 형성이 37.0%, 이혼에 의해서는 22.2%, 가족과 사별에 의해서는 16.0%,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면서 1인 가구를 형성하게 된 계기는 12.3%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60대 이상 1인 가구는 가족과 사별에 의해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비율이 57.5%로 가장 높고, 다음은 자녀가 독립함으로써 1인 가구를 형성하게 된 경우가 20.5%로 나타났다.

즉 대전시 1인 가구의 경우 연령대별로 1인 가구 형성의 계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0] 1인 가구 유형별 1인 가구 형성의 계기

구 분	1인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20대	30-50대	60대이상						
형 성 계 기	학업	빈도	86	0	0	86	447.018	12	0.000
		%	81.1	0.0	0.0	21.2			
	직장 관계	빈도	11	30	5	46			
		%	10.4	37.0	2.3	11.3			
	가족 독립	빈도	5	10	4	19			
		%	4.7	12.3	1.8	4.7			
	자녀 독립	빈도	0	4	45	49			
		%	0.0	4.9	20.5	12.1			
	가족 사별	빈도	2	13	126	141			
		%	1.9	16.0	57.5	34.7			
	이혼	빈도	1	18	31	50			
		%	0.9	22.2	14.2	12.3			
	기타	빈도	1	6	8	15			
		%	0.9	7.4	3.7	3.7			
전체	빈도	106	81	219	406				
	%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유형별 1인 가구 형성의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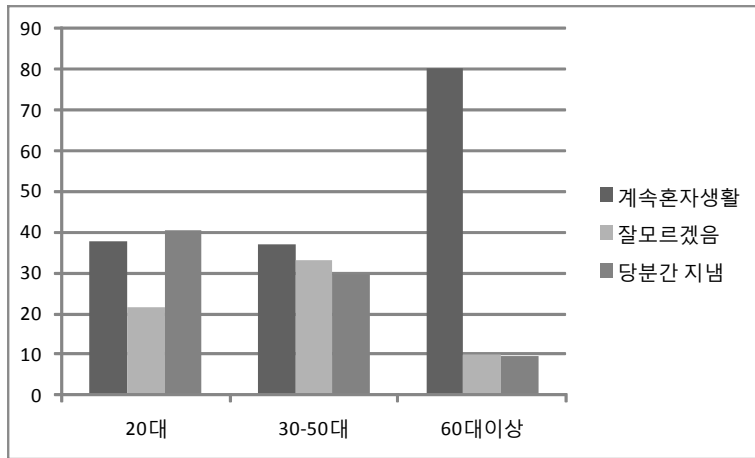
□ 향후에도 계속 혼자 생활할지 여부

1인 가구에 대해 향후에도 계속 혼자 생활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대 1인 가구는 '당분간만 혼자지낼 것'이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50대의 경우 '계속 혼자 생활하겠다'는 응답이 37.0%와 '당분간 혼자 생활할 것'이라는 응답도 29.6%, '잘 모르겠다'는 응답 역시 33.3%로 고른 응답을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향후 '계속 혼자 생활하겠다'는 응답이 80.4%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1인 가구 중 고령자의 경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1인 가구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21] 1인 가구 유형별 향후 혼자 생활 여부

구 분		1인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20대	30-50대	60대이상					
향 후 혼 자 생 활 여 부	계속 혼자 생활	빈도	40	30	176	84.617	4	0.000	
		%	37.7	37.0	80.4				60.6
	잘 모르겠음	빈도	23	27	22				72
		%	21.7	33.3	10.0				17.7
	당분간 지냄	빈도	43	24	21				88
		%	40.6	29.6	9.6				21.7
전체		빈도	106	81	219	406			
		%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유형별 향후 혼자 생활 여부]

□ 학력

1인 가구의 학력을 유형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84.0%로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0-50대의 경우에는 대학교 이상 졸업이 44.4%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이 34.6%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초등학교 졸업이 62.1%로 가장 높으며, 중학교 졸업은 20.5%로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을 갖고 있다.

즉 연령대별로 학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2] 1인 가구 유형별 학력

구 분		1인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20대	30-50대	60대이상					
학 력	초등학교졸업	빈도	0	7	136	285.457	6	0.000	
		%	0.0	8.6	62.1				35.2
	중학교졸업	빈도	1	10	45				56
		%	0.9	12.3	20.5				13.8
	고등학교졸업	빈도	89	28	33				150
%		84.0	34.6	15.1	36.9				
대학교이상졸업	빈도	16	36	5	57				
	%	15.1	44.4	2.3	14.0				
전체	빈도	106	81	219	406				
	%	100.0	100.0	100.0	100.0				

## □ 직업 유형

1인 가구의 직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대 1인 가구는 연령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이 전체의 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판매서비스가 9.4%를 차지하고 있다. 30-50대 1인 가구의 경우는 판매서비스가 33.3%, 개인사업이 1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1인 가구는 고연령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무직이 41.6%로 가장 많고, 주부 역시 40.2%로 높게 나타났다.

즉 20대 1인 가구는 학생, 30-50대 1인 가구는 판매서비스·개인사업 그리고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주부·무직으로 직업을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3] 1인 가구 유형별 직업유형

구 분		1인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20대	30-50대	60대이상					
직업	개인사업	빈도	1	12	8	21	451.566	16	0.000
		%	0.9	14.8	3.7	5.2			
	전문직	빈도	1	2	2	5			
		%	0.9	2.5	0.9	1.2			
	판매서비스	빈도	10	27	8	45			
		%	9.4	33.3	3.7	11.1			
	농어업	빈도	0	0	1	1			
		%	0.0	0.0	0.5	0.2			
	공무원	빈도	1	6	0	7			
		%	0.9	7.4	0.0	1.7			
	학생	빈도	82	0	0	82			
		%	77.4	0.0	0.0	20.2			
	기타	빈도	9	21	21	51			
		%	8.5	25.9	9.6	12.6			
	주부	빈도	0	5	88	93			
		%	0.0	6.2	40.2	22.9			
	무직	빈도	2	8	91	101			
		%	1.9	9.9	41.6	24.9			
전체	빈도	106	81	219	406				
	%	100.0	100.0	100.0	100.0				

□ 월소득

1인 가구의 소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대 1인 가구는 50만원 미만이 81.1%로 절대적으로 많으며, 30-50대 1인 가구의 경우 100-300만원 미만이 51.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50만원 미만의 점유비율도 19.8%로 다음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60대 이상의 1인 가구는 월소득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53.0%를 차지하고 있으며, 50-100만원 미만의 점유비율은 25.6%이다.

이상의 1인 가구 유형별 소득의 분포를 보면, 월소득 50만원 미만의 1인 가구가 전체의 53.7%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약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60대 이상의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8.6%를 차지하는 등 월소득이 낮으며, 이는 향후 1인 가구의 주거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표 3-24] 1인 가구 유형별 월소득

구 분		1인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20대	30-50대	60대이상					
월 소 득	50만원 미만	빈도	86	16	116	218	122.811	12	0.000
		%	81.1	19.8	53.0	53.7			
	100만 원미만	빈도	2	9	56	67			
		%	1.9	11.1	25.6	16.5			
	3백만 원미만	빈도	18	42	40	100			
		%	17.0	51.9	18.3	24.6			
	5백만 원미만	빈도	0	11	4	15			
		%	0.0	13.6	1.8	3.7			
	7백만 원미만	빈도	0	2	1	3			
		%	0.0	2.5	0.5	0.7			
	천만원 미만	빈도	0	1	1	2			
		%	0.0	1.2	0.5	0.5			
	천만원 이상	빈도	0	0	1	1			
		%	0.0	0.0	0.5	0.2			
전체	빈도	106	81	219	406				
	%	100.0	100.0	100.0	100.0				

## □ 총자산

1인 가구의 총자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대 1인 가구의 87.7%는 총자산이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50대 1인 가구의 경우 1천만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22.2%를 차지하여 가장 높으나, 3천만원 미만도 19.8%, 5천만원 미만도 19.8%, 1억원-3억원 미만의 경우도 17.3%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60대 이상 1인 고령자가구는 1천만원 미만의 총자산 보유자가 전체의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억원-3억원 미만의 자산 보유자도 24.7%로서, 총자산이 많은 고령자와 그렇지 못한 고령자 등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즉 20대 1인 가구는 총자산이 적고, 30-50대의 경우 다양한 총자산 분포를 보이며, 60대 이상의 경우 양극화된 분포를 보이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25] 1인 가구 유형별 총자산

구 분		1인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20대	30-50대	60대이상					
총 자 산	1천만 원미만	빈도	93	18	63	174	148.612	12	0.000
		%	87.7	22.2	28.8	42.9			
	3천만 원미만	빈도	9	16	30	55			
		%	8.5	19.8	13.7	13.5			
	5천만 원미만	빈도	3	16	12	31			
		%	2.8	19.8	5.5	7.6			
	1억원 미만	빈도	0	12	28	40			
		%	0.0	14.8	12.8	9.9			
	3억원 미만	빈도	1	14	54	69			
		%	0.9	17.3	24.7	17.0			
	5억원 미만	빈도	0	4	20	24			
		%	0.0	4.9	9.1	5.9			
	5억원 이상	빈도	0	1	12	13			
		%	0.0	1.2	5.5	3.2			
전체	빈도	106	81	219	406				
	%	100.0	100.0	100.0	100.0				



□ 성별

1인 가구의 유형별 성구분을 보면, 20대 1인 가구의 남자 구성비율은 52.8%이며, 30-50대 1인 가구의 남자구성비율은 53.1%로서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 1인 가구의 남자 구성비율은 40.6%로서 여성에 비해 약 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1인 가구 유형별 성구분**

구 분			1인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20대	30-50대	60대이상				
성 별	남자	빈도	56	43	89	188	6.141	2	0.046
		%	52.8	53.1	40.6	46.3			
	여자	빈도	50	38	130	218			
		%	47.2	46.9	59.4	53.7			
전체		빈도	106	81	219	406			
		%	100.0	100.0	100.0	100.0			

2) 주거실태

□ 현 주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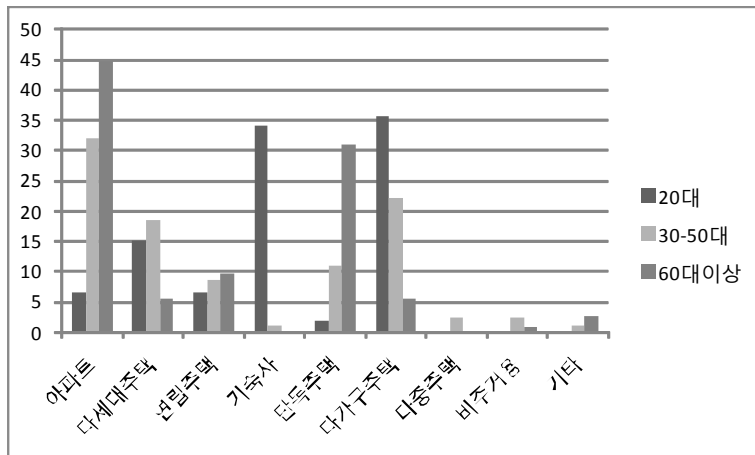
1인 가구의 유형별 주택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20대 1인 가구는 다가구 주택에서의 거주비율이 35.8%로 가장 높았으며, 기숙사(고시원) 또한 34.0%로 높게 나타났다. 30-50대 1인 가구의 주택유형은 아파트 거주가 32.1%로 가장 높았으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22.2%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아파트 점유형태가 전체의 44.7%로 가장 높았으며, 또한 단독주택 점유형태도 31.1%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20대 1인 가구는 다가구주택·기숙사<sup>10)</sup>, 30-50대 1인 가구는 아파트·다가구주택 그리고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아파트·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신상영(2010)은 젊은 독신자들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고시원은 주거지로서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재개발 등으로 소형주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적당한 소득과 자산을 갖추지 못한 젊은 독신자들이 대체주거로서 고시원을 선택한다고 추측하였다.

[표 3-27] 1인 가구 유형별 주택구분

구 분		1인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20대	30-50대	60대이상					
주택 유형	아파트	빈도	7	26	98	131	232.613	16	0.000
		%	6.6	32.1	44.7	32.3			
	다세대주택	빈도	16	15	12	43			
		%	15.1	18.5	5.5	10.6			
	연립주택	빈도	7	7	21	35			
		%	6.6	8.6	9.6	8.6			
	기숙사(고시원)	빈도	36	1	0	37			
		%	34.0	1.2	0.0	9.1			
	단독주택	빈도	2	9	68	79			
		%	1.9	11.1	31.1	19.5			
	다가구주택	빈도	38	18	12	68			
		%	35.8	22.2	5.5	16.7			
	다중주택	빈도	0	2	0	2			
		%	0.0	2.5	0.0	0.5			
비주거용	빈도	0	2	2	4				
	%	0.0	2.5	0.9	1.0				
기타	빈도	0	1	6	7				
	%	0.0	1.2	2.7	1.7				
전체	빈도	106	81	219	406				
	%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유형별 주택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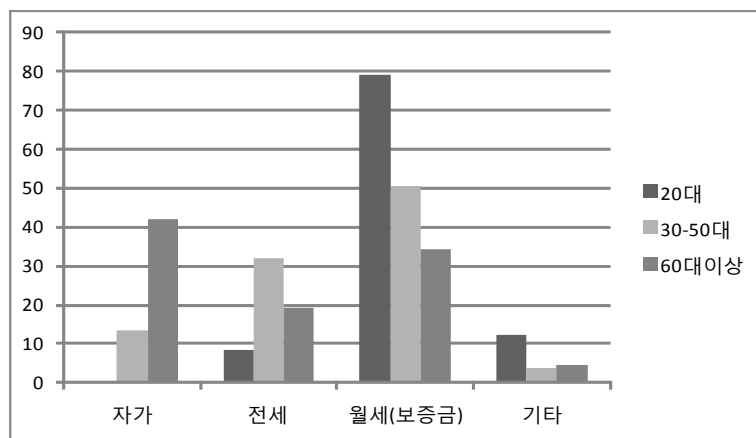
### □ 주택의 점유형태

1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대 1인 가구는 월세(보증금 포함) 점유비율이 79.2%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0-50대 1인 가구의 경우 월세(보증금)가 50.6%, 전세가 3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자가가 4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월세(보증금)의 경우도 34.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1인 가구의 월세 및 전세 비율이 전체 가구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은 주택공급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28] 1인 가구 유형별 주택 점유형태

구 분		1인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20대	30-50대	60대이상					
점 유 형 태	자가	빈도	0	11	92	103	105.895	6	0.000
		%	0.0	13.6	42.0	25.4			
	전세	빈도	9	26	42	77			
		%	8.5	32.1	19.2	19.0			
	월세(보증금)	빈도	84	41	75	200			
		%	79.2	50.6	34.2	49.3			
	기타(무상)	빈도	13	3	10	26			
		%	12.3	3.7	4.6	6.4			
전체		빈도	106	81	219	406			
		%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유형별 주택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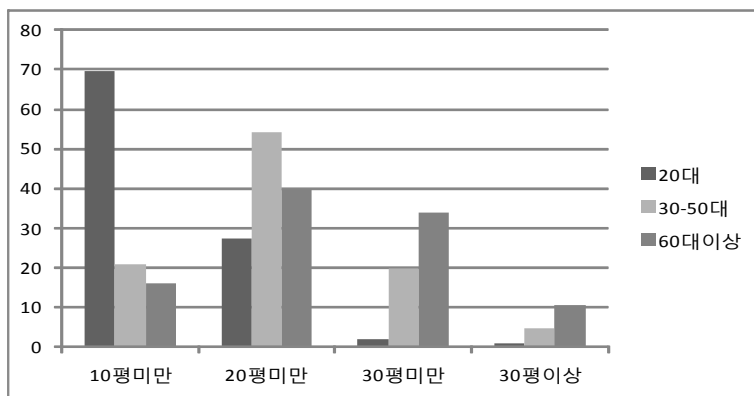
## □ 주택의 규모

1인 가구의 유형별 주택규모를 살펴보면, 20대 1인 가구는 10평 미만에 거주하는 비율이 69.8%로 높게 나타났으며, 30-50대 1인 가구는 10-20평 미만에 거주하는 비율이 54.3%이다. 60대 이상 1인 가구는 10-20평 미만에 거주하는 비율이 39.7%로 가장 높으나, 20-30평 미만에 거주하는 1인 가구비율도 33.8%로 높게 나타났다.

즉 1인 가구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큰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1인 가구 유형별 주택규모의 차이가 있음은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은 앞서 검토한 1인 가구 유형별 자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3-29] 1인 가구 유형별 주택 규모

구 분			1인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20대	30-50대	60대이상				
주 택 규 모	10평 미만	빈도	74	17	35	126	120.950	6	0.000
		%	69.8	21.0	16.0	31.0			
	20평 미만	빈도	29	44	87	160			
		%	27.4	54.3	39.7	39.4			
	30평 미만	빈도	2	16	74	92			
		%	1.9	19.8	33.8	22.7			
	30평 이상	빈도	1	4	23	28			
		%	0.9	4.9	10.5	6.9			
전체		빈도	106	81	219	406			
		%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유형별 주택 규모]

□ 주택이나 주변환경 개선점

1인 가구 유형별 주거환경 개선점에 대한 조사결과, 20대 1인 가구는 높은 임대료나 높은 주택가격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31.1%가 응답하였으며, 주차장 등과 같은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15.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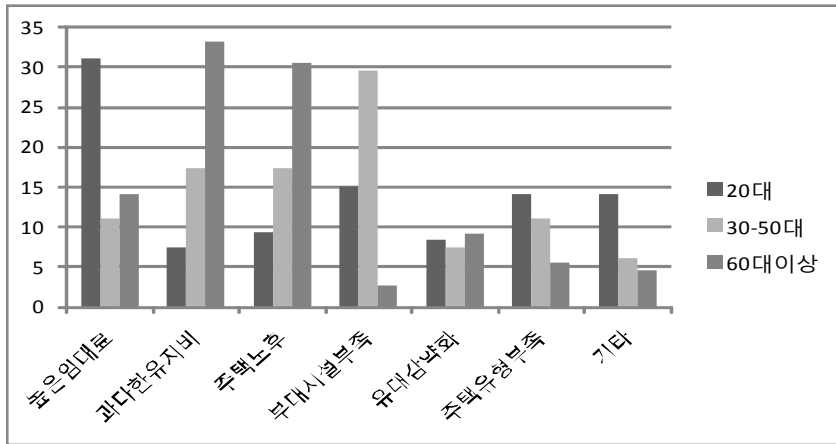
30-50대 1인 가구의 경우 부대시설 부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도한 주거유지비와 주택노후 등에 대한 개선 응답도 각각 17.3%이다.

한편 60대 이상 1인 가구는 과도한 주택유지비에 대한 응답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 노후에 대한 응답도 30.6%로 역시 높게 나타났다.

즉 1인 가구의 유형별 주거환경 개선점은 20대 1인 가구의 경우 높은 임대료, 30-50대 1인 가구의 경우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부족 그리고 60대 이상 1인 가구는 과도한 주택유지비나 주택노후 등이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표 3-30] 1인 가구 유형별 주거환경 개선점

구 분		1인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20대	30-50대	60대이상					
개 선 점	높은임대료,가격	빈도	33	9	31	73	106.927	12	0.000
		%	31.1	11.1	14.2	18.0			
	과다한유지비	빈도	8	14	73	95			
		%	7.5	17.3	33.3	23.4			
	주택노후	빈도	10	14	67	91			
		%	9.4	17.3	30.6	22.4			
	부대시설부족	빈도	16	24	6	46			
		%	15.1	29.6	2.7	11.3			
	유대감약화	빈도	9	6	20	35			
		%	8.5	7.4	9.1	8.6			
	주택유형부족	빈도	15	9	12	36			
		%	14.2	11.1	5.5	8.9			
	기타	빈도	15	5	10	30			
		%	14.2	6.2	4.6	7.4			
전체	빈도	106	81	219	406				
	%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유형별 주거환경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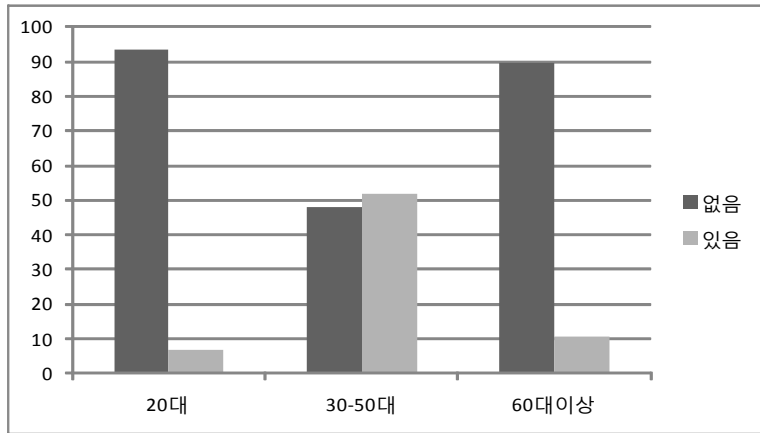
□ 자동차 보유

1인 가구의 자동차 보유현황을 연령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20대 1인 가구의 경우 자동차가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93.4%로 대부분의 20대 1인 가구가 자동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50대의 경우 절반 가량인 51.9%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60대 이상 1인 가구는 89.5%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동차 보유현황은 앞서 살펴 본, 1인 가구의 유형별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1] 1인 가구 유형별 자동차 보유

구 분		1인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20대	30-50대	60대이상				
자 동 차	없음	빈도	99	39	196	81.480	2	0.000
		%	93.4	48.1	89.5			
	있음	빈도	7	42	23			
		%	6.6	51.9	10.5			
전체		빈도	106	81	219	406		
		%	100.0	100.0	100.0			



[1인 가구 유형별 자동차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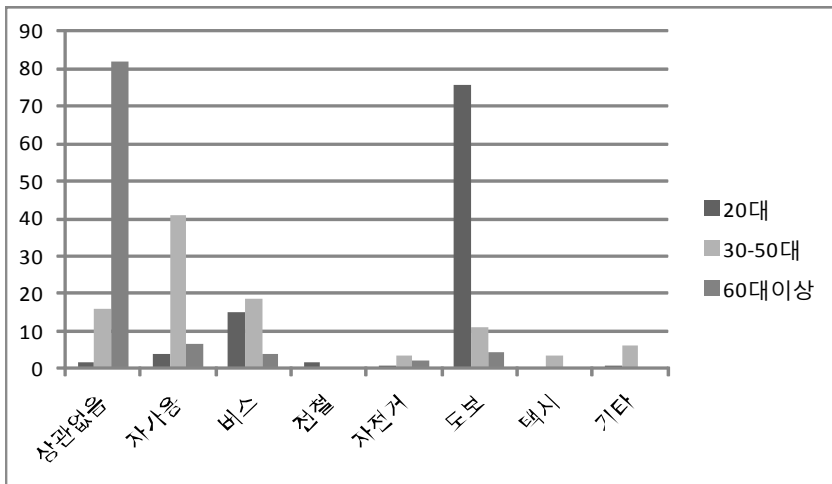
#### □ 주요 교통수단

1인 가구의 출퇴근·통학통근 시 주요 교통수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대 1인 가구의 경우 도보가 전체의 7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버스는 15.1%이다. 30-50대 1인 가구의 주요 출퇴근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40.7%이며, 버스 역시 18.5%로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비율이 약 6.8%로 나타났다.

대전시 1인 가구 중 20대는 주로 도보로 출퇴근·통근통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5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가용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20대 1인 가구는 학생으로서 주로 학교와 인접하여 거주지를 정하며, 30-50대는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자가용 또는 버스 등)을 이용하는 주거입지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3-32] 1인 가구 유형별 출퇴근 시 주요 교통수단

구 분		1인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20대	30-50대	60대이상					
주 요 교 통 수 단	상관없음	빈도	2	13	179	194	381.718	14	0.000
		%	1.9	16.0	81.7	47.8			
	자가용	빈도	4	33	15	52			
		%	3.8	40.7	6.8	12.8			
	버스	빈도	16	15	9	40			
		%	15.1	18.5	4.1	9.9			
	전철	빈도	2	0	1	3			
		%	1.9	0.0	0.5	0.7			
	자전거	빈도	1	3	5	9			
		%	0.9	3.7	2.3	2.2			
	도보	빈도	80	9	10	99			
		%	75.5	11.1	4.6	24.4			
	택시	빈도	0	3	0	3			
		%	0.0	3.7	0.0	0.7			
	기타	빈도	1	5	0	6			
		%	0.9	6.2	0.0	1.5			
전체	빈도	106	81	219	406				
	%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유형별 출퇴근 시 주요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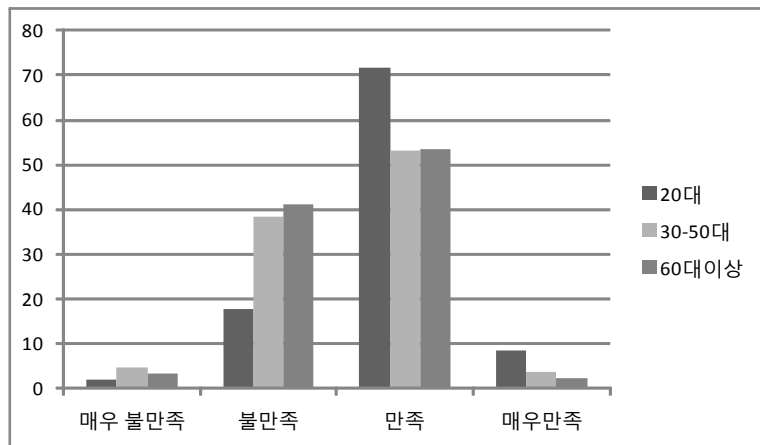
### 3) 1인 가구의 만족도

#### □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

1인 가구의 유형별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대 1인 가구는 80.2%가 현재의 1인 가구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50대는 56.8%가 만족하며, 60대 이상 1인 가구는 55.7%가 만족하여 20대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가 약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1인 가구의 유형별 삶의 만족도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표 3-33] 1인 가구 유형별 생활만족도

구 분		1인 가구 유형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20대	30-50대	60대이상					
삶 만 족 도	매우 불만족	빈도	2	4	7	24.053	6	0.001	
		%	1.9	4.9	3.2				3.2
	불만족	빈도	19	31	90				140
		%	17.9	38.3	41.1				34.5
	만족	빈도	76	43	117				236
		%	71.7	53.1	53.4				58.1
	매우 만족	빈도	9	3	5				17
		%	8.5	3.7	2.3				4.2
전체		빈도	106	81	219	406			
		%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유형별 생활만족도]

## □ 주거환경 만족도

1인 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4점 만점 기준)를 분야별·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3-34]와 같다.

주택구조 및 시설 부문에 있어서, 주택의 규모나 주차시설 등에 대해 20대 1인 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의식 측면에서는 이웃과의 교류, 치안, 이웃의 친절도 등 모든 항목에서 60대 이상 1인 가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20대 1인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접근성 측면에서는 직장이나 학교로의 통근통학은 20대 1인 가구의 만족도가 높았고, 도시 주요시설 그리고 대중교통까지의 이용편리 등에 있어서는 30-50대 1인 가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변환경 및 시설 측면인 공원·산책로 분포 그리고 근린시설(수퍼마켓 등) 분포 등의 모든 항목에서 60대 이상 1인 가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환경측면에서 주택의 유지·관리비용에서는 20대 1인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60대 이상 1인 가구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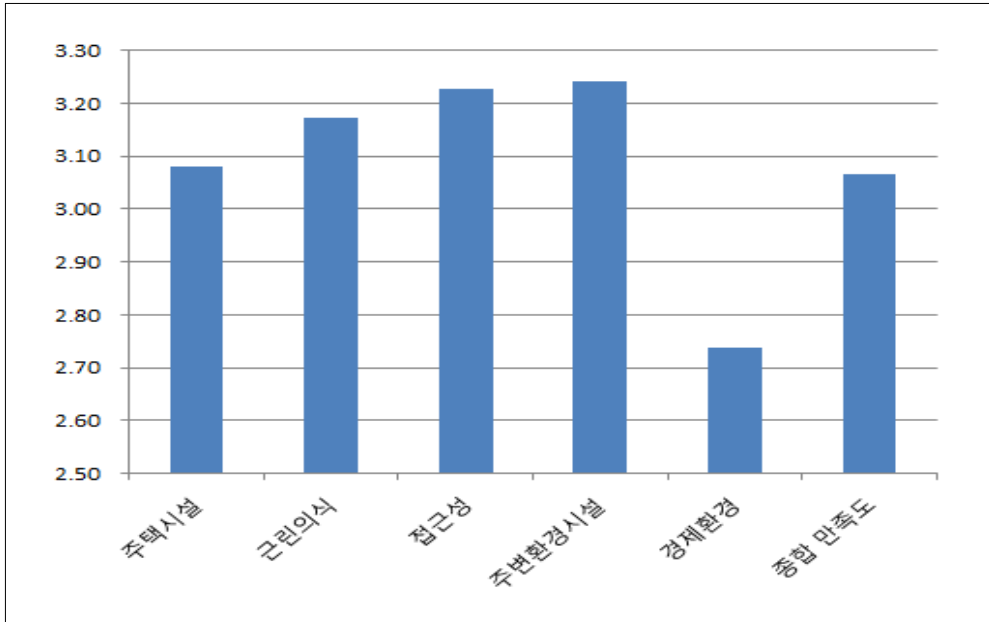
이상의 주거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는 20대 1인 가구가 3.12점으로 60대 이상 1인 가구의 3.11점과 거의 유사하나 30-50대 1인 가구의 2.89점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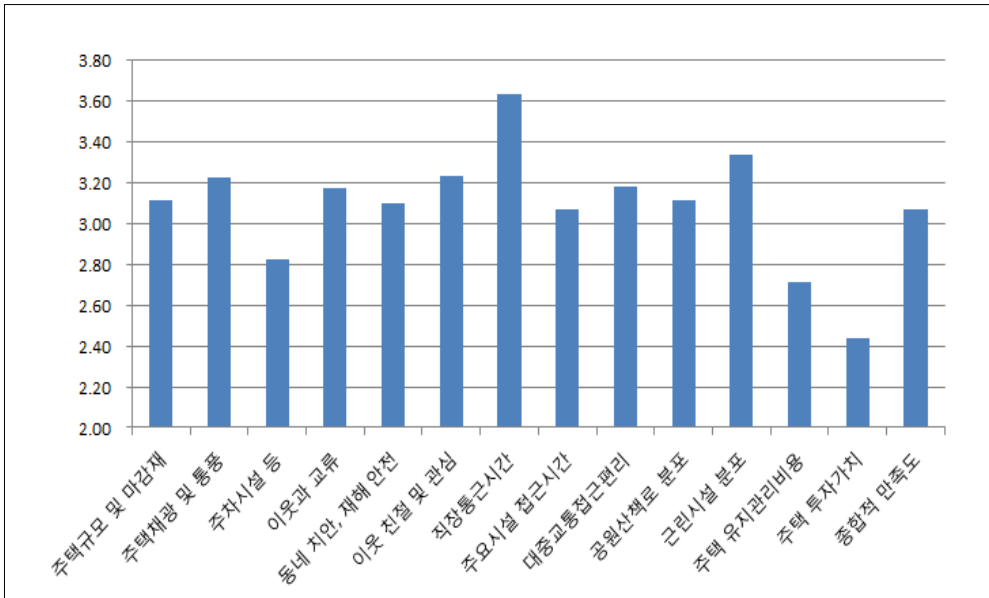
11) 안진화 외(2008)의 연구에서 보면, 젊은 1인 가구의 경우 이웃과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표 3-34] 1인 가구 유형별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요소		N	1인 가구의 유형			평균
			20대	30-50대	60대이상	
주택구조 및 시설	주택의 규모 및 마감재(바닥재질, 창문재질 등)	406	<b>3.38</b>	3.01	3.03	3.12
	현 주택의 채광과 통풍 등	406	3.27	3.01	<b>3.28</b>	3.23
	주차시설(주차장 등) 확보 수준	406	<b>2.95</b>	2.51	2.88	2.83
	주택구조 및 시설 종합만족도	406	<b>3.21</b>	2.88	3.10	3.08
근린의식	동네사람(이웃)과의 교류(대화 및 방문 등) 정도	406	2.71	2.81	<b>3.53</b>	3.17
	동네(단지) 주변 치안, 재해 등으로 부터 안전	406	2.95	2.88	<b>3.26</b>	3.10
	동네사람(이웃) 간 친절 및 관심	406	2.89	2.85	<b>3.54</b>	3.23
	근린의식 종합적 만족도	406	2.83	2.79	<b>3.48</b>	3.17
접근성	현 주택에서 직장(학교)으로 통근 수단 및 통근시간	204	<b>3.64</b>	2.86	0.56	3.63
	도시 내 주요시설로 접근수단 및 시간	406	3.02	<b>3.32</b>	3.00	3.07
	현 주택에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기까지의 편리	406	3.27	<b>3.33</b>	3.08	3.18
	접근성 종합적 만족도	406	<b>3.36</b>	3.33	3.12	3.23
주변환경 및 시설	인근 공원, 산책로 등의 분포 및 시설 상태	406	3.08	2.81	<b>3.24</b>	3.11
	근린시설(수퍼마켓, 미용실, 세탁소 등)의 분포 및 이용편리	406	3.31	3.20	<b>3.41</b>	3.34
	주변환경 및 시설 종합적 만족도	406	3.18	3.04	<b>3.35</b>	3.24
경제적 환경	주택의 유지관리비용(전기요금, 냉난방비 등)	406	<b>3.13</b>	2.68	2.53	2.71
	주택의 투자가치(가격 상승)	103	0.00	0.33	<b>1.02</b>	2.44
	경제적 환경 종합적 만족도	406	<b>3.06</b>	2.74	2.58	2.74
주거환경 종합적 만족도		406	<b>3.12</b>	2.89	3.11	3.07



[부문별 만족도 : 전체 만족도]



[주거환경 요소별 만족도 : 전체 만족도]

#### 4) 주거선택 요인의 중요도 : AHP 분석

##### □ AHP 분석법 개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으로 1970년대 초 Satty에 의해 개발된 분석법으로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에 의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의사결정방법론이다.<sup>12)</sup>

##### □ 계층구조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하여, 요소간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계층구조를 설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위계층 및 하위계층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상위계층과 각 상위계층별 3개의 하위계층을 [그림 3-15]와 같이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3개 상위계층은 입지요인, 주택요인 그리고 사회경제요인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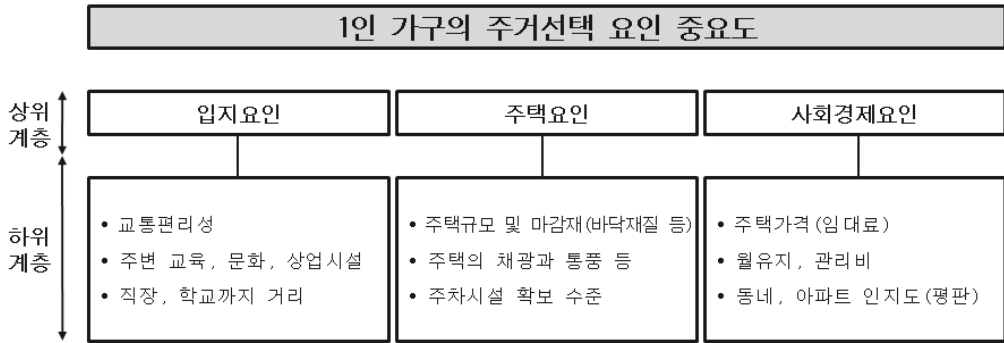
한편 각 상위계층별 하위계층 구성은, 입지요인의 경우 교통편리성, 주변 교육·문화·상업시설, 직장·학교까지의 거리로 설정하였으며, 주택요인의 경우 주택규모 및 마감재(바닥재질 등), 주택의 채광과 통풍 등 그리고 주차시설 확보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하위계층으로는 주택가격(임대료), 월유지·관리비 그리고 동네·아파트 인지도(평판)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406매 설문조사 결과 중, 응답의 일관성(Consistency Ratio : CR)이 0.15<sup>13)</sup> 이하인 49매를 기초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12) 조근태 외(2005, p.3)

13) 일반적으로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 CR)이 0.1 또는 0.15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0.15의 수준에서 일관성을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림 3-15] AHP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

### □ 분석 결과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1인 가구의 주거선택 요인별 가중치를 도출한 결과, [그림 3-1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입지요인의 가중치는 0.373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0.361과 주택요인 0.26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요인의 하위계층 요소별 가중치를 살펴보면, 교통의 편리성 요소가 0.540으로 주변 교육·문화·상업시설 요소 0.266이나 직장·학교까지의 거리 0.194에 비해 높은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요인에서는 주택의 채광과 통풍요소의 중요도가 0.469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주차시설 확보수준 요소가 0.274 그리고 주택규모 및 마감재 요소가 0.257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월유지·관리비 요소가 0.415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다음은 주택가격(임대료) 요소로 0.386 그리고 동네·아파트 인지도(평판) 요소가 0.198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주거선택 요인별 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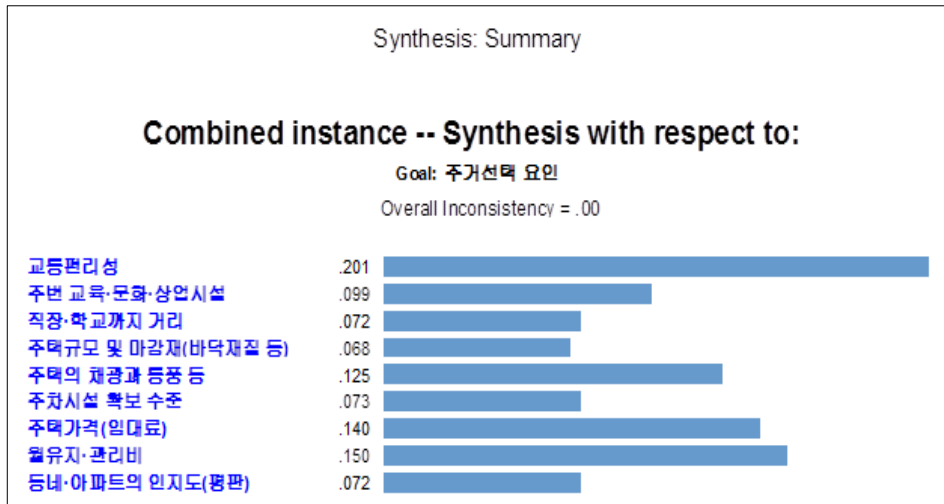
주거선택 요인별 가중치에 기초하여, 9개 요소별 가중치(중요도)를 도출하면 [그림 3-17]과 같다. 우선 분석결과로 제시된 각 요소별 가중치의 신뢰도라고 할 수 있는 일관성 지수가 0.00으로 나타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주택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교통편리성으로 나타났으며, 교통편리성의 가중치는 0.201로 나타났다. 다음은 월유지·관리비로서 0.150이며, 주택가격(임대료)의 가중치도 0.140으로 다음 순위이다.

주택의 채광과 통풍에 대한 가중치는 0.125, 주변 교육·문화·상업시설 분포에 대한 가중치는 0.099로 전체 9개 요소 중 4, 5번째 높은 순위이다.

한편 주차시설 확보수준은 0.073, 직장·학교까지 거리와 동네·아파트 인지도(평판) 요소는 각각 0.072로 가중치가 낮다고 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주택을 선택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도가 낮은 요소는 주택 규모 및 마감재(바닥재질 등)로 그 가중치는 0.068이다.

이상과 같은 1인 가구 주거선택 요소의 중요도는 향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 확보 시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주거지 선택 시, 교통편리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up>14)</sup>



[그림 3-17] 9개 주거선택 요소별 가중치

14)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보면 서울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인 가구가 이사를 할 때 주거입지의 어떤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를 살펴 본 결과, 교통여건을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규모, 주택유형, 내부시설 등에도 높은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선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향후 이사 시 고려사항으로는 편의·위락시설, 녹지여건, 주거환경 개선, 주택가격 상승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고려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p.52)



## 제 4 장

---

### 장래 1인 가구 규모 검토

---

제1절 우리나라 1인 가구 규모

제2절 대전시 1인 가구 규모

---



## 제4장 장래 1인 가구 규모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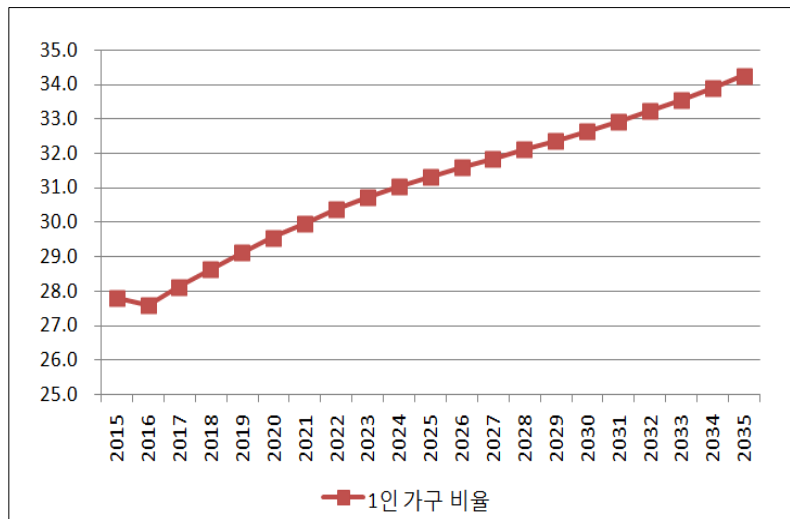
### 제1절 우리나라 1인 가구 규모

#### 1. 통계청 예측규모

통계청에서는 2015년 이후 2035년까지 우리나라의 가구수와 1인 가구수를 [표 4-1]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표 4-1]에 제시된 1인 가구 규모 추정치를 살펴보면, 2015년 약 5백만명에서 2021년 6백만명을 넘어서며, 2030년에는 7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2015년 총 가구수는 약 18백만 가구, 2021년 약 20백만 가구 그리고 2030년 총 가구수는 약 21백만 가구로 예측되었다.

추정된 1인 가구수와 총가구수에 기초하여, 장래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을 산출하면, 2015년 27.8%에서, 2020년 29.6%, 2025년 31.3%, 2030년 32.7% 그리고 2035년에는 34.3%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4-1] 2015년-2035년간 1인 가구비율 예측

**[표 4- 1] 우리나라 장래 1인 가구비율 예측(단위 : 가구, %)**

구 분	총가구수	1인 가구수	1인 가구 비율(%)
2015년	18,191,663	5,060,551	27.8
2016년	18,948,342	5,230,202	27.6
2017년	19,187,307	5,398,263	28.1
2018년	19,421,482	5,563,449	28.6
2019년	19,650,361	5,722,473	29.1
2020년	19,878,399	5,876,740	29.6
2021년	20,106,424	6,027,684	30.0
2022년	20,334,462	6,175,487	30.4
2023년	20,547,981	6,314,740	30.7
2024년	20,748,480	6,442,808	31.1
2025년	20,937,339	6,560,883	31.3
2026년	21,114,056	6,671,074	31.6
2027년	21,276,888	6,777,282	31.9
2028년	21,430,559	6,882,207	32.1
2029년	21,578,087	6,987,252	32.4
2030년	21,716,589	7,091,247	32.7
2031년	21,844,121	7,192,420	32.9
2032년	21,964,653	7,299,243	33.2
2033년	22,074,526	7,406,849	33.6
2034년	22,173,035	7,515,433	33.9
2035년	22,260,603	7,628,065	34.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주 : 1인 가구비율은 추정함

## 2. 세계 주요 국가 1인 가구 비율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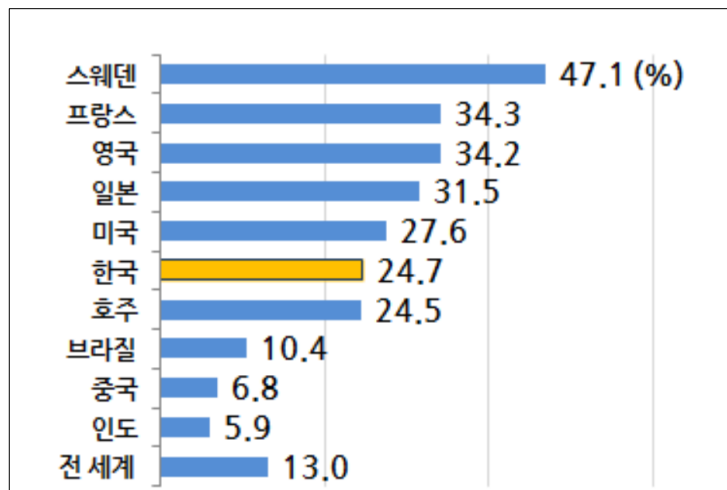
### 1) 주요 국가의 1인 가구 비율

2011년 세계 주요 국가들의 1인 가구비율은 [그림 4-2]와 같다. 2011년 전 세계의 1인 가구비율은 13.0%이며, 스웨덴의 1인 가구비율이 47.1%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34.3%, 영국은 34.2%로 유럽 국가들의 1인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1인 가구비율이 31.5%로 우리나라의 24.7%에 비해 6.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1인 가구비율은 27.6%로서 우리나라보다 2.9%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의 1인 가구비율은 24.5%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중국의 1인 가구비율은 6.8%, 인도의 1인 가구비율은 5.9%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비율은 미국 및 호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을 제외한 유럽 선진국의 1인 가구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10% 이상 높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1인 가구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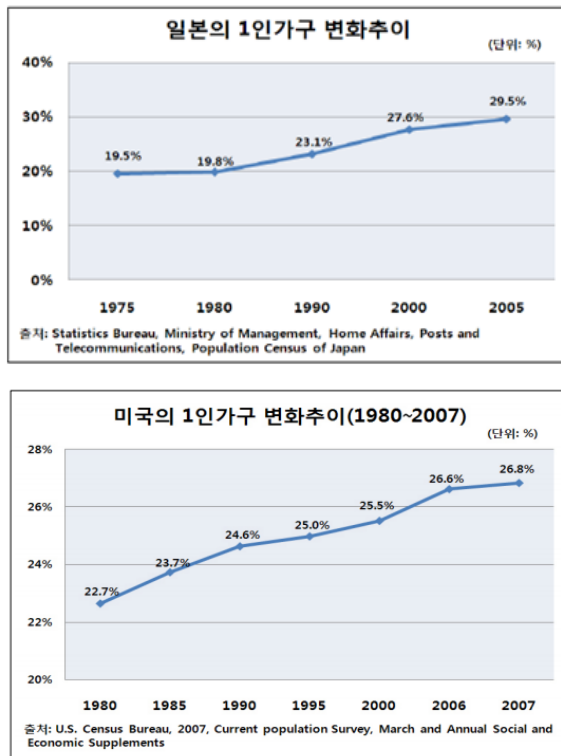
[그림 4-2] 주요 국가별 1인 가구비율(2011년 기준)

자료 : Euromonitor; 통계청, KOSIS, 삼성경제연구소(2012)에서 재인용

## 2) 일본과 미국의 1인 가구 변화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의 1인 가구 변화를 살펴보면, 1975년 19.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 19.8%, 1990년 23.1%, 2000년 27.6%, 2005년 29.5% 그리고 최근인 2011년([그림 4- 2] 참조)에는 31.5%로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2000년-2011년) 3.9%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2010년간 8.4% 증가함으로서 일본의 2배 이상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미국의 1인 가구비율은 1980년 22.7%에서 1985년 23.7%, 1990년 24.6%, 2000년 25.5%, 2006년 26.6% 그리고 2011년([그림 4- 2] 참조)의 경우 27.6%로 나타나 1인 가구 비율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2011년간 미국의 1인 가구는 2.1% 증가하여, 우리나라 증가추세의 1/4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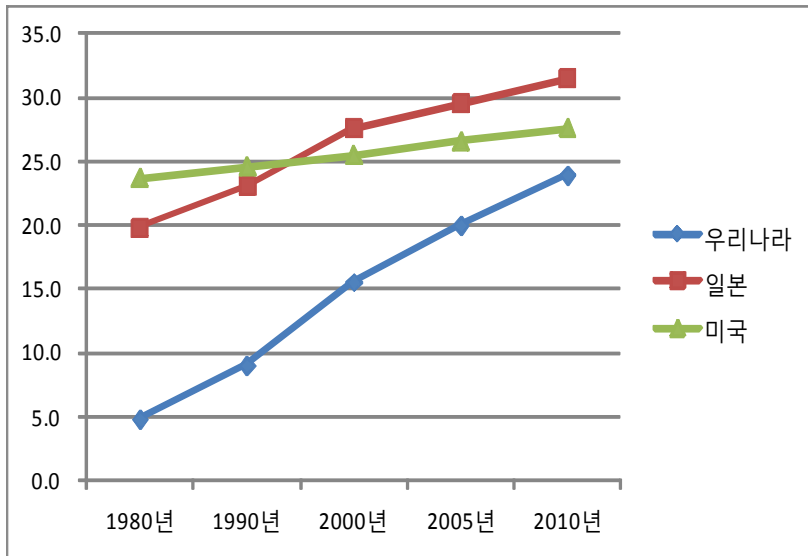


[그림 4- 3] 일본과 미국의 1인 가구비율 변화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1인 가구 비율을 시기적으로 비교하면 [그림 4-4]와 같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비율은 1980년 4.8%에서 2010년 기준 23.9%로서 지난 30년간 19.1%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약 30년간(1980-2011년) 11.7%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동일시기에 3.9% 증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1인 가구비율은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라고 인식되며,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증가추세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히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4]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1인 가구 비율 변화

## 제2절 대전시 1인 가구 규모

### 1. 1인 가구 규모 전망

#### 1) 1인 가구수 예측

통계청에서는 2015년 대전시 1인 가구를 [표 4-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70,831가구, 2020년 198,824가구, 2025년 221,579가구, 2030년 239,964가구 그리고 2035년에는 259,514가구로 예측하고 있다.

[표 4-2] 대전시 및 주요 대도시 장래 1인 가구규모 예측(단위 : 가구)

년도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2015	981,574	352,829	231,670	242,196	153,859	<b>170,831</b>	93,145
2016	1,005,466	363,830	238,822	251,633	159,378	<b>176,752</b>	95,811
2017	1,029,417	374,414	245,817	261,087	164,764	<b>182,541</b>	98,401
2018	1,053,078	384,538	252,581	270,447	170,030	<b>188,247</b>	100,916
2019	1,075,651	393,997	259,013	279,519	175,052	<b>193,717</b>	103,257
2020	1,096,195	402,916	264,962	288,423	179,816	<b>198,824</b>	105,530
2021	1,115,913	411,545	270,716	297,135	184,516	<b>203,830</b>	107,672
2022	1,134,848	419,860	276,279	305,714	189,072	<b>208,736</b>	109,720
2023	1,151,565	427,664	281,481	314,102	193,181	<b>213,365</b>	111,606
2024	1,165,581	434,798	286,202	322,101	196,820	<b>217,632</b>	113,268
2025	1,177,135	441,335	290,435	329,863	200,119	<b>221,579</b>	114,696
2026	1,186,496	447,566	294,441	337,268	203,110	<b>225,154</b>	115,957
2027	1,194,881	453,649	298,424	344,624	205,845	<b>228,666</b>	117,112
2028	1,202,488	459,886	302,520	351,906	208,410	<b>232,330</b>	118,199
2029	1,209,678	466,516	306,730	359,162	211,019	<b>236,133</b>	119,187
2030	1,216,912	473,317	310,780	366,345	213,632	<b>239,964</b>	120,111
2031	1,223,771	480,018	314,641	373,312	216,121	<b>243,713</b>	120,929
2032	1,232,597	486,815	318,588	380,399	218,700	<b>247,639</b>	121,697
2033	1,242,277	493,367	322,352	387,448	221,247	<b>251,564</b>	122,376
2034	1,252,896	499,763	326,057	394,468	223,727	<b>255,492</b>	122,963
2035	1,264,976	506,202	329,861	401,534	226,274	<b>259,514</b>	123,49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표 4-2]에 제시된 각 연도별 도시별 1인 가구 예측치를 2015년 규모 100으로 비율 적용하면 [표 4-3]과 같다.

대전시 1인 가구 규모는 2015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20년 116, 2025년 130, 2030년 140 그리고 2035년 152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인천시 다음으로 높은 증가추세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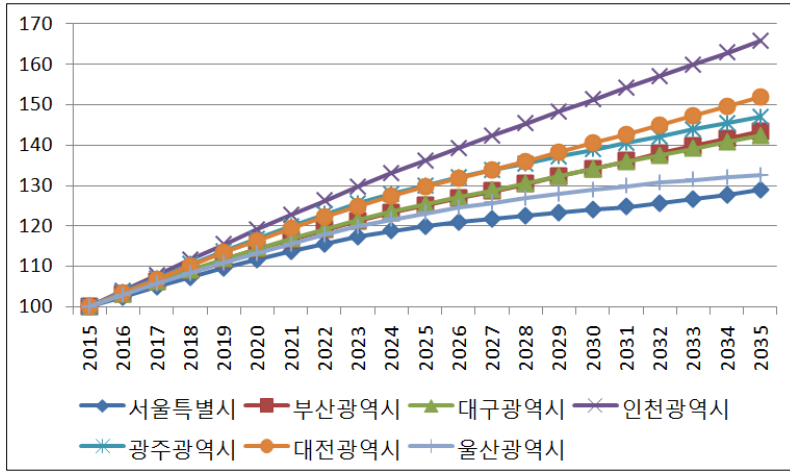
인천시의 2035년 예측치는 166이며, 광주시는 147, 부산시는 143, 대구시는 142, 울산시는 133 그리고 서울시는 129로 대도시 중 서울시의 1인 가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대전시 1인 가구는 향후 2035년까지도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표 4-3] 2015년 기준 대전시 및 주요 대도시 장래 1인 가구 규모 비율**

연도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2015	100	100	100	100	100	<b>100</b>	100
2016	102	103	103	104	104	<b>103</b>	103
2017	105	106	106	108	107	<b>107</b>	106
2018	107	109	109	112	111	<b>110</b>	108
2019	110	112	112	115	114	<b>113</b>	111
2020	112	114	114	119	117	<b>116</b>	113
2021	114	117	117	123	120	<b>119</b>	116
2022	116	119	119	126	123	<b>122</b>	118
2023	117	121	122	130	126	<b>125</b>	120
2024	119	123	124	133	128	<b>127</b>	122
2025	120	125	125	136	130	<b>130</b>	123
2026	121	127	127	139	132	<b>132</b>	124
2027	122	129	129	142	134	<b>134</b>	126
2028	123	130	131	145	135	<b>136</b>	127
2029	123	132	132	148	137	<b>138</b>	128
2030	124	134	134	151	139	<b>140</b>	129
2031	125	136	136	154	140	<b>143</b>	130
2032	126	138	138	157	142	<b>145</b>	131
2033	127	140	139	160	144	<b>147</b>	131
2034	128	142	141	163	145	<b>150</b>	132
2035	129	143	142	166	147	<b>152</b>	133

주 : 2015년 가구규모를 100으로 설정하였을 때, 각 연도별 가구규모임



[그림 4- 5] 2015년 기준 주요 대도시 1인 가구규모 예측치

## 2) 1인 가구 비율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5년까지의 1인 가구 추정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의 장래 1인 가구비율을 도출하면 [표 4- 4]와 같다.

대전시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30.0%에서 2020년 31.9%, 2025년 33.8%, 2030년 35.3% 그리고 2035년에는 37.3%로서 다른 대도시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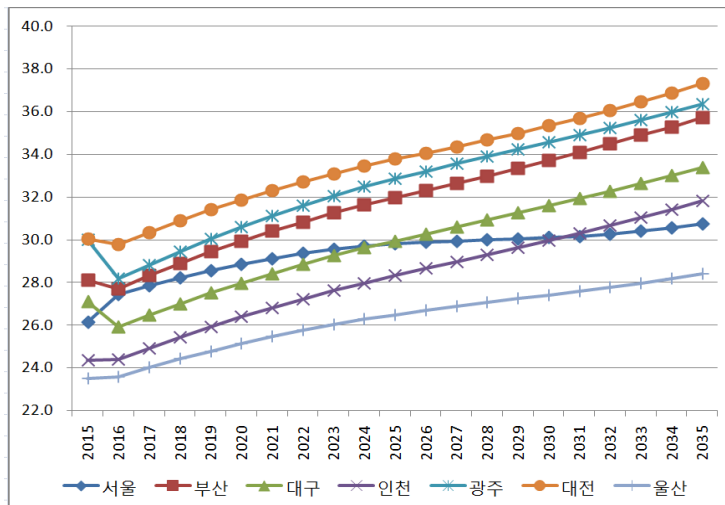
2035년 다른 대도시의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광주시가 36.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부산시는 35.7%, 대구시는 33.4%, 인천시는 31.8%, 서울시는 30.8% 그리고 울산시는 가장 낮은 28.4%의 1인 가구 비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예측치를 기준으로 볼 때, 대전시에서는 지속적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4-4] 주요 대도시의 장래 1인 가구비율 예측(단위 : %)

년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5	26.1	28.1	27.1	24.4	30.0	30.0	23.5
2016	27.4	27.7	25.9	24.4	28.2	29.8	23.6
2017	27.8	28.3	26.5	24.9	28.8	30.3	24.0
2018	28.2	28.9	27.0	25.4	29.4	30.9	24.4
2019	28.6	29.4	27.5	25.9	30.0	31.4	24.8
2020	28.9	29.9	28.0	26.4	30.6	31.9	25.1
2021	29.1	30.4	28.4	26.8	31.1	32.3	25.5
2022	29.4	30.8	28.8	27.2	31.6	32.7	25.8
2023	29.6	31.2	29.2	27.6	32.1	33.1	26.0
2024	29.7	31.6	29.6	28.0	32.5	33.5	26.3
2025	29.8	32.0	29.9	28.3	32.9	33.8	26.5
2026	29.9	32.3	30.3	28.6	33.2	34.1	26.7
2027	29.9	32.6	30.6	29.0	33.6	34.4	26.9
2028	30.0	33.0	30.9	29.3	33.9	34.7	27.1
2029	30.0	33.3	31.3	29.6	34.2	35.0	27.2
2030	30.1	33.7	31.6	30.0	34.6	35.3	27.4
2031	30.2	34.1	31.9	30.3	34.9	35.7	27.6
2032	30.3	34.5	32.3	30.7	35.3	36.1	27.8
2033	30.4	34.9	32.6	31.0	35.6	36.5	28.0
2034	30.6	35.3	33.0	31.4	36.0	36.9	28.2
2035	30.8	35.7	33.4	31.8	36.4	37.3	28.4

주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그림 4-6] 주요 대도시 장래 1인 가구의 점유비율 변화

## 2. 연령대별 1인 가구 규모 전망

앞선 선행연구나 설문조사 등에서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연령대별 그 사회적 경제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래 1인 가구의 연령대 구성을 예측하게 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1인 가구 증가,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전시 장래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4-5] 대전시 장래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 예측(단위 : %)**

구 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60대 이상
2015년	100.0	2.5	27.1	18.0	13.6	14.9	10.6	8.9	4.1	0.4	23.9
2016년	100.0	2.4	26.8	17.6	13.5	15.0	11.1	9.0	4.3	0.4	24.8
2017년	100.0	2.3	26.5	17.3	13.3	14.9	11.7	9.1	4.5	0.4	25.7
2018년	100.0	2.1	26.2	16.9	13.1	14.9	12.2	9.2	4.8	0.5	26.7
2019년	100.0	2.0	25.8	16.6	12.9	14.9	12.8	9.4	5.0	0.5	27.7
2020년	100.0	1.9	25.2	16.4	12.8	14.8	13.5	9.5	5.3	0.5	28.9
2021년	100.0	1.7	24.6	16.2	12.7	14.8	14.2	9.7	5.5	0.6	30.0
2022년	100.0	1.6	24.0	15.9	12.6	14.7	14.9	9.9	5.7	0.6	31.1
2023년	100.0	1.6	23.2	15.8	12.4	14.7	15.5	10.2	6.0	0.7	32.3
2024년	100.0	1.6	22.4	15.7	12.3	14.7	15.9	10.6	6.1	0.7	33.4
2025년	100.0	1.6	21.5	15.6	12.1	14.6	16.2	11.3	6.2	0.8	34.5
2026년	100.0	1.7	20.6	15.6	12.0	14.5	16.4	11.9	6.4	0.9	35.6
2027년	100.0	1.7	19.8	15.4	11.9	14.5	16.5	12.6	6.7	0.9	36.7
2028년	100.0	1.7	19.2	15.3	11.7	14.3	16.6	13.3	7.0	1.0	37.9
2029년	100.0	1.7	18.6	15.0	11.6	14.1	16.7	14.0	7.2	1.1	39.0
2030년	100.0	1.7	18.1	14.7	11.4	14.0	16.8	14.8	7.5	1.1	40.2
2031년	100.0	1.6	17.7	14.3	11.2	13.8	16.8	15.6	7.7	1.2	41.3
2032년	100.0	1.7	17.5	13.6	11.1	13.6	16.7	16.4	8.0	1.3	42.4
2033년	100.0	1.7	17.5	13.0	11.0	13.4	16.7	17.0	8.4	1.3	43.4
2034년	100.0	1.7	17.4	12.3	11.0	13.2	16.7	17.4	8.9	1.3	44.4
2035년	100.0	1.7	17.5	11.6	11.0	12.9	16.6	17.7	9.5	1.4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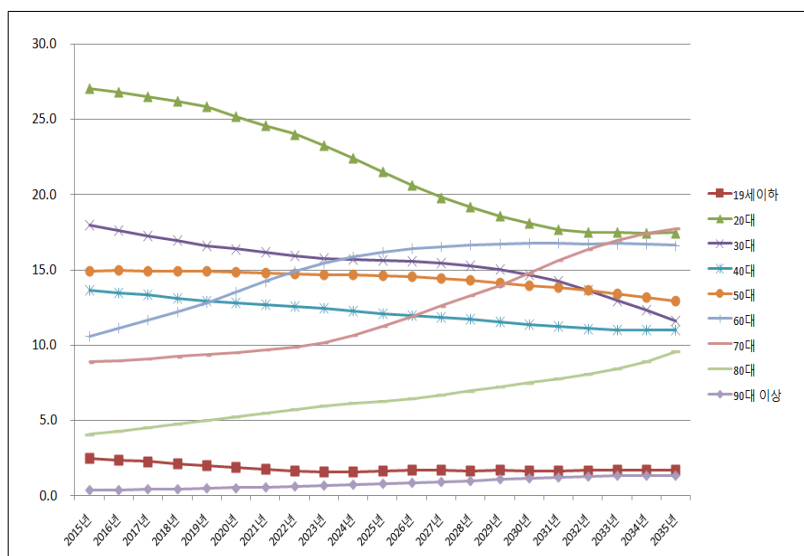
주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15) 물론 이와 같은 대응방안의 수립은 현재의 연령대별 1인 가구 특성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표 4- 5]에 제시된 장래 대전시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 1인 가구는 2015년 27.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21.5% 그리고 2035년에는 17.5%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30대 1인 가구의 경우도 2015년 18.0%에서 2035년 11.6%로 감소하며, 50대 1인 가구의 경우도 2015년 14.9%에서 2035년 12.9%로 감소가 예상되었다.

반면 60대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10.6%에서 2025년 16.2% 그리고 2035년에는 16.6%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70대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8.9%에서 2035년 17.7%로, 80대 1인 가구의 경우도 2015년 4.1%에서 2035년 9.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20대 1인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30-50대 1인 가구비율은 10% 초반으로 수렴하는 반면, 60-70대 고령 1인 가구비율이 10% 후반대로 20대 1인 가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7] 대전시 장래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점유비율 변화



## 제 5 장

---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전시 대응방안

---

제1절 선행 계획 및 정책 검토

제2절 외국의 정책 검토

제3절 대전시 대응방안

---





# 제5장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전시 대응방안

## 제1절 선행 계획 및 정책 검토

### 1.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계획 검토

#### 1) 정부차원의 대응

국토 및 지역계획관련 가장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년)'에 서는 다음과 같은 6대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 ①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②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③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④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⑤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⑥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이와 같은 6대 전략 중 1인 가구와 관련한 내용은 3번째 전략인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에 포함되어 있다.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도시환경 즉 핵가족화와 저출산 등으로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1-2인 가구용 주택이나, 고령자용 주택 공급이 미약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1-2인 가구 증가나 고령화는 향후에도 증가·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1-2인 가구에 대응한 추진과제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소형주택 공급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즉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공급할 경우 조세지원, 용적률 인센티브 등 지원과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교 기숙사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2) 지자체 차원의 대응

### □ 서울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2006)’의 주택계획에서는 생활방식이 서구화되고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자녀들의 독립, 독신 및 이혼 등으로 1인 가구와 비혈연 가구의 대폭적인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수준에 맞춘 저렴한 다양한 형태의 소형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 부도심 지역 또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다양한 수준의 소형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1인 가구비율은 2015년 20.51%, 2020년 22.55%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1인 및 2인가구 증대에 대한 시책으로는 소형 주택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양질의 주택재고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020년 서울주택종합계획(2011)’에서는 1인 및 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한 전략들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 소형·저렴주택 공급확대, 소형(강소)주택 모델 개발·보급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1인 가구에 대응한 세대분리형 주거모델 개발 등을 담고 있다.

### □ 대전시

대전시 도시계획에서 상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2006)’에서는 1인 및 2인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이나 시책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주거환경계획에서 핵가족화의 지속적 진전과 함께 계획과제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형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20년 대전주택종합계획(2011)’에서는 1인·2인 가구에 대한 계획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추진전략으로 ‘1인·2인 가구 지원형 주거형태 공급’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① 1인·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 기반시설 미설치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설치기준 적용

② 정비사업 추진 시 소형주택 확보

- 장래 1인·2인 가구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소형 : 중형 : 대형 공급비율이 50% : 45% : 5%를 유지토록 함

또한 대전주택종합계획에서는 1인·2인 가구 외에도 ‘고령자 주거지원 확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전략에서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고령자 전용주택 확보 전략 및 소요

- 소득분위를 고려한 고령자 전용주택 확보전략 수립
- 고령자 주택 소요추정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② 고령자 주택 확보를 위한 공공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 : 신규고령자주택

-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고령자주택으로 확보
- 고령자 전용주택(실버타운) 건설 지원
- 일반분양아파트에서 고령자 지원 주택 확보

③ 기존 주택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화로 고령자 주택 확보

## 2. 선행연구에서의 제안내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에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정책 수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첫째, 2호선 중심의 싱글벨트(Single Belt) 형성
- 둘째, 다양한 소형 주거의 확충
- 셋째, 주택공급제도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 개선
- 넷째, 주거의 안전성 확보 정책
- 다섯째, 사회 위험성 제고 정책
- 여섯째, 심리적, 정서적 건강 제고 정책

김옥연 외(2009)는 그들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1인 가구 주택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정부는 1인 가구 주택수요를 반영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 확대, 주거비 세금공제, 대체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셋째, 각종 주택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주택정책의 대상에 1인 가구도 포함시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넷째, 정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은진 외(2010)는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첫째, 1인 가구의 고용지와 가까운 곳에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 둘째,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저·중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제정한다면 저·중소득층의 교통기본권을 확립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건축법상 방법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근린환경단위에서 1인 가구가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근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넷째, 향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시 저소득층의 경우, 복지시설과 녹지시설을,

중소득층은 대규모 점포시설과 녹지시설을, 고소득층은 대규모 점포시설 등의 편의 시설과 주거공급을 연계하여 줌으로써 1인 가구를 위한 생활권 단위의 근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신상영(2010)은 서울시 1인 가구 분포에 대한 연구결과,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저립주택은 외곽지역 보다는 기성시가지에서 중심지와 대중교통체계를 근간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소형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보통의 가족가구 주거지에 동화되어 사는 정도가 비교적 높은 40-50대 보다는 1인 가구의 양 극단에 있는 20-30대와 60대 이상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 다만 젊은 독신자와 노인독신가구는 경제적 기반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정책적 관심대상이 되어야 하는 1인 가구이지만, 주거입지 및 주택선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공급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규현 외(2010)는 대도시 거주 1인 가구 주거공간 중점 고려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중교통지향형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인 가구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방화, 방범 등 안전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1인 가구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구 단위로 공동주차요건을 정하는 보다 탄력적인 방법을 도입한다든지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1인 가구, 특히 독거노인의 주거와 관련하여 가장 큰 정책과제의 하나는 안정성 확보문제로 Universal Design 개념에 입각한 주거기준을 확립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로형 쪽방 형태의 고시원의 안전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비좁은 쪽방과 미로형 복도, 소득기반이 약한 독신자들이 밀집한 다중시설로서 화재와 범죄에의 취약성 등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2)에서는 서울시 1·2인 가구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대상가구 다변화 필요

둘째, 고용중심지 주변 소형·저렴 주택 공급확대 필요

셋째, 1·2인 가구 밀집 주거지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 방향

넷째, 1·2인 가구 수요자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

<b>대학생</b>	<p><b>대학생 주거안정 지원 제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희망하우징과 대학생 전세임대는 수요 대비 공급물량 크게 부족</li> <li>- 기숙사 부지, 시유지활용, 다세대/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등 추진</li> <li>- 대학과 지역주민 간 협약체결을 통한 저렴한 대학생 주택 공급 지원</li> <li>- 서울시는 행정절차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li> </ul>
<b>청년부부</b>	<p><b>만혼 및 저출산에 대응한 청년부부 주거안정 지원방안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소득 기준으로 저소득 신혼부부에 한정된 지원</li> <li>- 1·2인가구 중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지만, 저출산에 대응하여 청년부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필요</li> </ul>
<b>60대 이상 고령가구</b>	<p><b>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령가구 대상 주거안정 지원방안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가하는 고령가구에 대비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 모색</li> <li>- 고독사 등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li> <li>-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층 확대, 커뮤니티와 안전 등 종합적 주거복지</li> </ul>

다섯째, 소형주택 확대를 위한 주택규모 조정 및 질적 수준 제고

## 제2절 외국의 정책 검토 : 일본의 도쿄의 사례<sup>16)</sup>

### 1. 소형가구 양적 변화와 특성

도쿄도의 가구수 및 가구당 가구원수를 보면 <표 5- 1>과 같다.

1960년 도쿄도의 가구당 가구원수는 3.45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0년 2.67인, 1990년 2.47인, 2000년 2.21인 그리고 2010년은 2.03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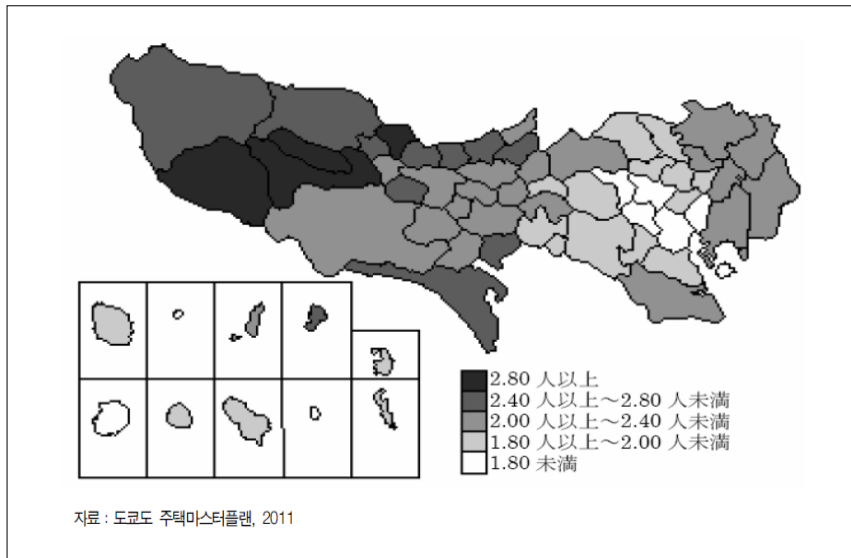
또한 2005년 시정촌별 가구당 가구원수 분포를 보면([그림 5- 1] 참조), 도심부의 경우 대부분 2.0명 미만으로 소형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1] 도쿄도 가구수 및 가구당 가구원수**

구 분	가구수	가구인원(인)	가구당 가구원수(인/세대)
1960년	2,773,076	9,560,389	3.45
1970년	3,947,787	11,246,609	2.85
1975년	4,206,920	11,478,880	2.73
1980년	4,285,658	11,445,413	2.67
1985년	4,488,493	11,666,760	2.60
1990년	4,693,621	11,613,495	2.47
1995년	4,952,354	11,588,818	2.34
2000년	5,371,057	11,864,419	2.21
2005년	5,747,460	12,249,414	2.13
2010년	6,382,049	12,978,624	2.03

자료 : 국세조사(각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2, p.84)

16)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2)의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음



**[그림 5- 1] 시정촌별 가구당 인원(2005년)**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2,p.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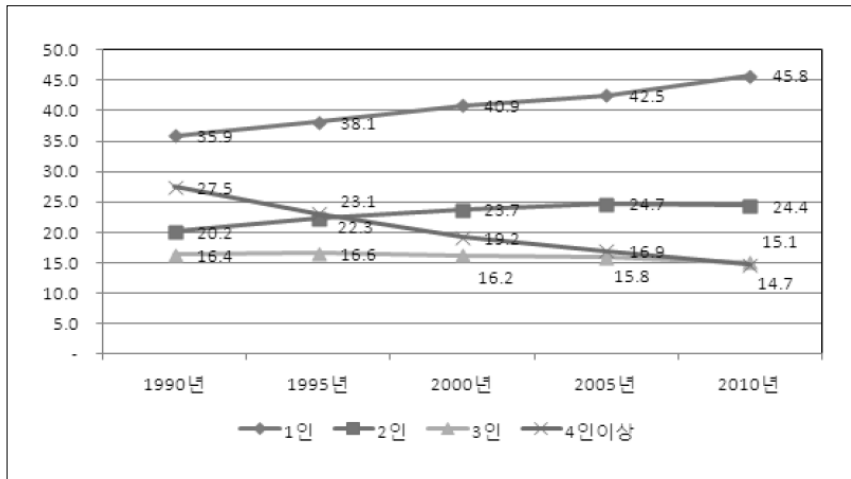
일본 도쿄의 1인 가구의 현황을 보면, 1990년 전체 가구수의 35.9%에서 2000년 40.9% 그리고 2010년 45.8%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반면 2인 가구의 경우, 1990년 20.2%에서 2010년 24.4%로 지난 20년간 5% 미만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5- 2] 도쿄도 가구원수별 가구수 현황(단위 : 가구)**

구 분	일반 가구수					비율(%)				
	전체	1인	2인	3인	4인 이상	전체	1인	2인	3인	4인 이상
1990년	4,693,621	1,687,151	946,305	768,725	1,291,440	100.0	35.9	20.2	16.4	27.5
1995년	4,952,354	1,887,862	1,102,943	819,702	1,141,847	100.0	38.1	22.3	16.6	23.1
2000년	5,371,057	2,194,342	1,275,571	870,017	1,031,127	100.0	40.9	23.7	16.2	19.2
2005년	5,747,460	2,444,145	1,419,109	910,498	973,708	100.0	42.5	24.7	15.8	16.9
2010년	6,382,049	2,922,488	1,557,663	963,448	938,450	100.0	45.8	24.4	15.1	14.7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2,p.85)





[그림 5- 2] 도쿄도 가구원수별 가구수 현황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2,p.85)

## 2. 도쿄도 주택정책 변화(도쿄주택마스터플랜)

도쿄도에서는 1991년 이후 주택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1991년의 정책목표는 여유로운 주거생활의 실현, 2001년은 풍요롭고 활기찬 도쿄거주의 실현 그리고 2011년의 경우 수도 도쿄에 어울리는 고도의 방재기능을 갖춘 거주의 실현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1년 주요 시책은 기존 주택재고의 적절한 대응, 시장기능의 충실 및 강화 그리고 사회안전망 기능의 재구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책지표의 경우 일본 도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조주택밀집지역 정비율이나 주택내진화율 등에 대한 정책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고령자 관련 정책목표도 제시하고 있는데, 고령자대상 케어임대주택의 급속한 확보와 함께 고령자주택 배리어프리화율을 2008년 40%에서 2020년 80%로 증가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자를 위한 정책지표 등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고령 1인 가구의 증가 등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구분	1991년	2001년	2011년
정책 목표	여유로운 주거생활의 실현	풍요롭고 활기찬 도교거주의 실현	수도도교에 어울리는 고도의 방재기능을 갖춘 거주지의 실현
주요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민의 생활공간에 여유로움 확대</li> <li>-직주 균형있는 도시구조 형성</li> <li>-도시형 커뮤니티의 형성</li> <li>-적절한 주거비 부담의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력이 살아있는 주거</li> <li>-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li> <li>-니즈에 대응한 선택 가능한 주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주택재고의 적절한 대응</li> <li>-시장기능의 충실 및 강화</li> <li>-사회안전망 기능의 재구축</li> </ul>
정책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당 주택면적 : 60.3㎡ (1988년) → 70㎡(2000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심지역 주택건설호수 : 15만호(01~05년 누계)</li> <li>-도심지역 임대주택비율 56.9%(98년)→60%(15년)</li> <li>-구부 공동주택 80㎡ 이상 주택비율 : 7.1%(98)→15%(15년)</li> </ul>	<p><b>【정책목표별 정책지표 제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조주택밀집지역 정비율 : 56%(06년) → 70%(20년)</li> <li>-주택내진화율 : 79.8%(09년) → 95%(20년)</li> <li>-신축주택 차세대에너지기준 달성률: 46%(10년) → 100%(20년)</li> <li>-고령자대상 케어임대주택 : 882호(10년) → 6,000호(14년)</li> <li>-고령자주택 배리어프리화율 : 40%(08년) → 80%(20년)</li> <li>-신축주택 주택성능표시 시행률 : 27%(09년) → 50%(20년)</li> <li>-자녀양육세대 공공주택 모집수 : 22,000호(11~20년 누계)</li> <li>-최저주거면적수준 미만율 : 8.4%(08년) → 거의 해소(20년)</li> </ul>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2,p.90)

### 3.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제도 및 1·2인 가구 대상 주택공급 유형

#### 1)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제도

도교도의 1·2인 가구 관련 주택 및 정책은 고령자 관련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도에서 시행하는 고령자관련 정책(주택)은 구립 고령자집합주택, 고령자원활입주임대주택, UR 고령자용 임대주택, UR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등이 있다.

[표 5- 3] 도쿄도 1·2인 가구 관련 주택정책 개요

구 분	개 요	주체	입주자격
구립 고령자집 합주택	주택이 곤궁한 일정소득 이하의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자치구가 관리하는 주택임 고령자의 특성을 배려한 민간주택을 자치구가 임대하여 제공하는 형태이며, 주택에는 긴급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통보시스템 설치	자치구	각 자치구의 주택재고 물량에 의존하며, 싱글세대, 부부세대로 구분
공사 일반임대 주택	도쿄도의 주택공급공사가 건설,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도민주택과 같은 집세보조는 없음	도쿄도 주택공 급공사	
모자(母子)생활 지원시설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없는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 시설	자치구	소득에 따라 비용부담 편모+ 자녀
고령자 원활입 주 임대주택	「고령자 원활입주 임대주택」 및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을 소유자로 등록한 다음 주택을 찾는 고령자에게 임대주택 정보 제공	도쿄도	고령자
공영주택 독신 입주자격 확대	공영주택은 원칙적으로 가족세대만 입주 가능하나, 지자체의 판단으로 독신자의 입주 인정	지자체	동거친족이 없는 경우 공영주택 입주자격요건 부여 60세 이상 독신고령자,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등 한정
UR 고령자용 임대주택 (UR-B type)	고령자만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세대 또는 독신용이 있음. 입주자의 안부확인 및 긴급시의 대응을 위한 생활협력관이 거주	UR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매월 일정 월수입액 이상
UR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UR-C type)	“고령자의 거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65년경에 공급된 주택을 고령자용으로 리모델링한 주택	UR	60세 이상 싱글세대 또는 60세 이상 2인 세대
UR 독신자 전 용주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능력을 평가하여 독신세대의 입주기준 완화	UR	독신세대(고령자, 장애인) 모자세대 포함
원룸형 공동주 택 관련 정책	대도시권에서 원룸형식의 주택의 건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작성하여 독신자용 공동주택의 정리 및 공급	지자체	독신세대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2, pp.93-94)

## 2) 1·2인 가구 대상 주택공급 유형

1·2인 가구를 위한 일본의 소형주택은 민간과 공공에서 공급하는 유형이 있는데,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유형은 세어형 주택과 소형주택 그리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소형주택은 도시재생기구(UR)의 임대주택과 도시재생기구의 하우스 세어링이 있다.

특히 도시재생기구의 임대주택은 원룸형, 기숙사형, 3·4인 가족용, 고령자용 주택 등이 있다.

**[표 5- 4] 일본의 소형주택 분류 및 특성**

주 택 유 형		특 성	
민간	세어형 주택	게스트하우스	-외국인과 일본인 임대수요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원룸주택과 유사 -33㎡ 규모의 방에 1-2인 거주, 샤워실·화장실 실내배치, 거실, 주방 공동사용
		룸세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유닛을 빌려 혈연관계가 없는 거주자들이 동거하는 형태 -개인실, 욕실과 화장실 등은 공동이용 * 밍글아파트 : 동성친구 2인이 공동생활하는 주거형태로 개인실, 부엌과 욕실 공동이용, 공과금 반반 부담
		하우스 세어	-룸세어와 공간구성과 이용방법이 유사 -집 한 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
	소형 주택	콤팩트맨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고급맨션(공동주택) -다양한 콘셉트의 개발, 여성 싱글이 주고객
		레오팔레스21 (임대주택)	-일본 내국인 싱글족과 장단기체류 외국인 대상의 원룸주택 임대 -일본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총 40만개 객실규모의 시스템, 임대전문관리시스템 운영 -다양한 임대기간, 입체적 공간구성, 욕실, 화장실 분리설치, 풀옵션, 멤버십서비스
공공	도시재생기구(UR)의 임대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3-4인 가족용, 고령자용 주택과 혼합구성	
	도시재생기구(UR)의 하우스 세어링	-도시재생기구(UR)이 운영하는 룸세어 -이사율, 공가율이 높은 가족형 주호를 1인 가구에게 임대하는 유형	

자료 : 정소이 외, 「1인 가구 수요특성을 고려한 주택유형 개발연구」, 토지주택연구원, 2012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2, p.95)

## 제3절 대전시 대응방안

### 1.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전시 과제 도출

본 연구내용으로 제시된 대전시 1인 가구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전시는 1인 가구에 대해 기존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전시 1인 가구는 2010년 기준 전체 가구대비 36.8%로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장래 1인 가구에 대한 예측에서도 2035년까지 1인 가구비율이 대도시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대전시는 향후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전시 1인 가구는 다인가구(2인, 3인 가구 등)에 비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약자적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복지정책과 연동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대전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한 결과, 대전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과 취업률 그리고 월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제적 약자성향으로 인해 거주형태도 다세대주택과 월세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 비교하여 사회적 약자의 성향이 있으므로 공공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셋째, 대전시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뚜렷한 사회·경제·주거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유형별 맞춤형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sup>18)</sup> 20대 1인 가구는 학생으로 월소득과

17) 이희연 외(2011)는 그의 연구에서 1인 가구 그룹 가운데 가장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그룹은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채, 대도시의 대학가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산업예비군 그룹과 상당히 심각한 빈곤 속에서 고립되어 살고 있는 가장 취약계층인 도시 독거노인 그룹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신상영(2010)도 일반적으로 1인 가구는 소득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거주할 만한 초소형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과 불필요한 규제완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18) 이와 같은 1인 가구의 특성에 대해, 이희연 외(2011)는 1인 가구 자체가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룹에 속하는 1인 가구가 집중·분포되어 있는가를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는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신상영(2010) 또한 1인 가구의 일반적 공간분포 경향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노인독신가구는 전통적으로 도심지에, 젊은 독신자들은 대학가와 역세권에 분포함을 확인한 바 있다.

자산이 적으며, 다가구주택이나 기숙사에 거주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성향이 강하다. 30-50대의 경우 다른 1인 가구 유형에 비해 소득이 높고,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한다. 60대 이상의 1인 가구는 월소득은 낮으나 자산측면에서는 양극화적이고, 주로 주부나 무직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현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점도 20대 1인 가구의 경우 높은 임대료를, 30-50대 1인 가구의 경우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그리고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주택유지비나 주택노후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다. 즉 동일한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연령 계층에 따라 실태와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계층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사회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1인 가구에 대한 대응방안은 주로 주택(주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1인 가구가 보다 용이하게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응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1인 가구의 경우 향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유럽의 선진국 사례 또는 일본의 사례 등에서 볼 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물리적인 공간확보 외에 보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2.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전시 대응방안

앞서 제시한 대전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과제별 대응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시는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되, 획일화된 1인 가구 전용적인 주거공간 보다는 가변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거공간 및 유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할 경우,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되, 향후 2인 이상의 다인가구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변적 주거공간을 공급토록 한다.

둘째, 대전시 1인 가구 정책은 다인가구 유형(2인, 3인 가구 등)에 비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약자적 입장에 있으므로, 복지정책과 연동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대전시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정책측면에서는 1인 가구를 고려한 임대주택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또는 확보는 1인 가구의 특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결과의 하나는 1인 가구의 경우, 주거선택시 교통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은 교통편리성이 높은 지역, 즉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sup>19)</sup> 한편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고지가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의 매입임대주택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 가구 중 많은 수가 고령자임을 고려할 때, 고령자 복지정책과 1인 가구 대응정책이 상호 밀접하게 연동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19) 유사한 의미에서, 도심 등 고용 중심지에 30-50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대전시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뚜렷한 사회·경제·주거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유형별 맞춤형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전시 1인 가구의 경우, 20대 학생 1인 가구와 30-50대 직장인 1인 가구 그리고 60대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주거환경 측면에서 20대 학생 1인 가구는 저렴한 주거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30-50대는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의 확보를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 1인 가구는 과도한 주거유지비 및 주택노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각 유형별 요구에 대응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사회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주로 주거공간의 확보 및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제 1인 가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 약자가 많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취업기회 확대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생활함으로 인해 우울증 등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sup>20)</sup>, 가족이 수행했던 돌봄의 역할을 지역 커뮤니티 등이 분담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20) 삼성경제연구소(2012, p.11)



## 제 6 장

---

### 결론

---

제1절 연구결과 종합

제2절 연구의 시사점

---



## 제6장 결론

### 제1절 연구결과 종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시 1인 가구의 특성을 진단하고, 이러한 진단결과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장은 이론적 고찰로,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발생요인은 일반적으로 초혼연령의 상승, 이혼율 증가, 개인주의 확산,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대별 사회적 경제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선행연구에 검토 결과, 1인 가구 관련 연구는 인구주택센서스 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1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 설문조사 등에 기초한 실증 연구 그리고 기타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의 경우 대부분 서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대전시 1인 가구의 실태를 진단하였다.

2010년 기준 대전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대비 36.75%로 전국 주요 대도시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 1인 가구는 다른 대도시의 1인 가구에 비해, 20대 연령층이 많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적으며,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로는 미혼이 많으며, 직업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직업구조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주측면에서는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시 1인 가구는 공간적으로 볼 때, 대학교 인접한 지역에 밀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구별 1인 가구의 분포를 살펴 본 결과, 서구와 유성구 중심의 신시가지에서 집중적인 증가가 진행되었다. 대전시 1인 가구와 다인가구를 비교한 결과, 대전시 1인 가구의 교육수준은 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취업률이 낮고 또한 직업은 상대적으로 '고급'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소득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가구 유형에 비해 높고, 월세유형의 점유형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지수는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별로 1인 가구 형성의 계기가 다르며, 특히 60대 이상 1인 가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1인 가구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학력의 경우 60대 이상 1인 가구는 낮으며, 직업유형은 20대 1인 가구는 학생, 30-50대 1인 가구는 판매서비스·개인사업 그리고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주부·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30-50대 1인 가구가 높고, 20대와 60대 이상의 1인 가구는 매우 낮은 월소득을 보이고 있다. 총자산의 경우 60대는 양극화되어 있으며,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여성이 많다. 주거유형은 20대 1인 가구는 다가구주택·기숙사, 30-50대 1인 가구는 아파트·다가구주택 그리고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아파트·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주택의 점유형태는 월세 및 전세비율이 70%를 차지한다. 주택규모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며, 주거환경 개선점은 20대 1인 가구는 높은 임대료, 30-50대 1인 가구는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부족,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주택유지비나 주택노후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자동차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유율이 높고, 20대 1인 가구의 주요 교통수단은 보행, 30-50대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0대 1인 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대 1인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선택 요건에 대한 조사 결과, 주거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통의 편리성과 월유지 및 관리비 저렴 등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장래 1인 가구 규모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대전시 장래 1인 가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에 전체 가구수의 37.3%로 전국 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점유비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연령 대별로 보면, 20대 1인 가구와 60대 이상의 고령 1인 가구가 유사하게 수렴하고, 30-50대 1인 가구는 10% 초반에서 수렴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5장에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전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전시 1인 가구에 대한 분석결과, ① 대전시는 1인 가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② 대전시 1인 가구 관련정책은 다인 가구 유형에 비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약자적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복지정책과 연동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고, ③ 대전시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뚜렷한 사회·경제·주거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유형별 맞춤형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④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사회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등 4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서 ① 가변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거공간의 공급, ② 1인 가구에 적합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고령자 복지정책과 연동된 정책 추진, ③ 대전시 1인 가구의 요구에 대응한, 즉 20대 1인 가구는 저렴한 주거공간, 30-50대 1인 가구는 주차장 시설 등의 확보 그리고 60대 이상 1인 가구는 과도한 유지비 절감 방안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추진, ④ 주거공간에 대한 정책 외에 1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 및 커뮤니티 단위의 1인 가구 돌봄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첫째, 그동안 선행연구들이 모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지방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의미)되며,

둘째,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인구주택센서스 등 통계적 자료에만 의존하여, 1인 가구의 분포 및 사회적 특성 등을 도출하는데 그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계적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함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다양한 접근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HP 기법 등을 이용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선택요인의 중요도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판단에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앞선 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전시 1인 가구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세밀한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체계화된 연구를 위한 하나의 시범연구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현장조사 등을 통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토해양부, 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김옥연 외, 2009, 1인 가구 주거실태 분석 : 서울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지  
주거환경 제7권 제2호
- 김정수 외, 2004,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선택행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통권 133호
- 대전시, 2006,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 대전시, 2011, 2020년 대전광역시 주택종합계획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서울시 1·2인 가구 유형별 특성에 따른 주택정책방향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 서울시, 2006,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 서울시, 2011, 2020년 서울주택종합계획
- 신미림 외, 2011, 서울시 1인 가구의 주택수요 예측,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6권  
제4호
- 신상영, 2010, 1인 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사례로, 국토계획 제45권  
제4호
- 신은진 외, 2010, 소득별 1인 가구의 밀집지역 분석과 주거환경 평가,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2호
- 안신현, 2012,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트렌드,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영노트, 2012년  
8월호(제159호)
- 안진화 외, 2008, 1인 가구의 생활특성과 커뮤니티 공간 및 서비스 요구도, 한국주거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 이창효 외, 2010, 서울시 1인 가구의 밀집지역 분석과 주거환경 평가,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2호, pp.69-84
- 이현정, 2012, 한국과 미국의 1인 가구 특성 비교, 한국주거학회 2012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
- 이희연 외, 2011, 1인 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  
학회지 제46권 제4호
- 조근태 외, 2005,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 최막중 외, 2001,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입지 및 주택유형 수요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제36권 제6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지희 외, 2011, 1인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거실태 분석,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31권 제2호

Wuff, M., 2001, Growth and Change in One Person Households : Implications for the  
Housing Market, Urban Policy and Research, 19(4) : 467-489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자료

[http://blog.daum.net/korea\\_brand/2020\(2012.10.24.\)](http://blog.daum.net/korea_brand/2020(2012.10.2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2moun&logNo=9012425627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rgarden&logNo=10109503518>

[http://gnnews.newsk.kr/bbs/bbs.asp?group\\_name=426&idx\\_num=23859&exe=view](http://gnnews.newsk.kr/bbs/bbs.asp?group_name=426&idx_num=23859&exe=view)



## 부 록

---

---

부록 1. 1인 가구 주거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2. 우리나라 7대도시 1인 가구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결과

---



# 부 록

## 부록 1. 1인 가구 주거실태조사 설문지

### 대전시 1인 가구 주거환경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우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 및 통근·통학실태 등을 파악하여, 1인 가구를 위한 적절한 주거환경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분석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2. 9.

연락처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 병 호(☎. 042-530-3511)

♠♠ 본 조사에서 **“1인 가구”** 라고 함은 통계청의 표준정의에 따라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를 의미합니다. 조사의 특성상 1인가구만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I 1인 가구 형성요인

#### 1-1. 귀하가 1인 가구를 형성하게 된 계기는?

- ① 학업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면서(산업예비군 유형)
- ② 직장 관계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면서
- ③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면서(전문직 직종, 골드 미스·미스터 유형)
- ④ 자녀 등이 모두 독립(결혼, 유학 등으로)하여 혼자 생활하면서(고령화 및 핵가족화)
- ⑤ 가족과 사별하여 혼자 생활함
- ⑥ 이혼으로 혼자 생활함
- ⑦ 기타

#### 1-2. 귀하가 혼자 생활하신 기간은 언제부터 입니까? ( )년부터

1-3. 귀하는 향후에도 **계속 혼자 생활하실 계획**입니까?

- ① 앞으로도 계속 혼자 지낼 것 같다.<2-1로 이동>
- ② 잘 모르겠다.<2-1로 이동>
- ③ 당분간은 혼자 지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족과 함께 지낼 것이다.<1-4로 이동>

1-4. 위의 (1-3) 질문 중 3번 '어느 정도' 는 **구체적으로 몇 년 정도**입니까?

- ① 1년 이내      ② 3년 이내      ③ 5년 이내      ④ 10년 이내      ⑤ 10년 이상

## II 현재 주거실태

2-1.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아파트(원룸아파트 포함)    ② 다세대주택(원룸주택 포함)    ③ 연립주택(연립원룸 포함)
- ④ 기숙사(고시원 포함)      ⑤ 일반단독주택      ⑥ 다가구주택(원룸형 다가구 포함)
- ⑦ 다중주택                      ⑧ 비주거용(주거용 오피스텔)    ⑨ 기타(노인복지시설 등)

2-2.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보증금 포함)      ④ 기타(친인척, 무상 등)

2-3.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공동주택일 경우(공유면적 포함)	약 _____ 평(또는 _____ m <sup>2</sup> )
단독주택일 경우 건평(건물 면적 기준)	약 _____ 평(또는 _____ m <sup>2</sup> )

2-4.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이나 주변환경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높은 임대료(주택가격)    ② 과도한 주택 유지·관리비    ③ 주택의 노후    ④ 부대시설(주차장 등) 부족
- ⑤ 이웃간 유대감(이웃관계) 약화    ⑥ 선택 가능한 주택유형 부족    ⑦ 기타

2-5.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로서 만족도(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만족하다.      ④ 매우 만족한다.

### III 주거환경 만족도

구 분	주거환경 및 근린의식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주택구조 및 시설	주택의 규모 및 마감재(바닥재질, 창문재질 등)					
	현 주택의 채광과 통풍 등					
	주차시설(주차장 등) 확보 수준					
	<b>위의 언급된 주택 구조 및 시설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는?</b>					
근린의식	동네사람(이웃)과의 교류(대화 및 방문 등) 정도					
	동네(단지) 주변 치안,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					
	동네사람(이웃)간 친절 및 관심					
	<b>위의 근린의식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는?</b>					
접근성	현 주택에서 직장(학교)으로 통근수단 및 통근시간( <u>무직자 제외</u> )					
	도시 내 주요시설(백화점, 병원, 극장 등)으로의 접근수단 및 시간					
	현 주택에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기까지의 편리					
	<b>위의 접근성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는?</b>					
주변환경 및 시설	인근 공원, 산책로 등의 분포 및 시설 상태					
	근린시설(수퍼마켓, 미용실, 세탁소 등)의 분포 및 이용편리					
	<b>위의 주변환경 및 시설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는?</b>					
경제적 환경	주택의 유지관리비용(전기요금, 냉난방비 등)					
	주택의 투자가치(가격 상승)(주택소유자)					
	<b>위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는?</b>					
종합 만족도	이상의 모든 거주지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는?					

#### IV 주거선택 요건의 중요도

※ 주거지를 선택하는 요인에는 입지, 주택, 사회경제 요인이 있습니다. 각 요인들은 아래 표와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주거선택요인	구체적인 요소		
입지 요인	① 교통편리성	② 주변 교육·문화·상업시설	③ 직장·학교까지 거리
주택 요인	① 주택규모 및 마감재(바닥재질 등) ② 주택의 채광과 통풍 등 ③ 주차시설 확보 수준		
사회경제요인	① 주택가격(임대료)	② 월유지·관리비	③ 동네, 아파트의 인지도(평판)

※ 귀하가 주거지를 선택할 때, 다음 질문의 A와 B를 비교하여 어느 쪽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한쪽에만 체크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주택요인이 입지요인에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주택요인 측 7번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요 인 (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 인 (B)
	1	2	3	4	5	6	7	8	9	
입지 요인							√			주택 요인

귀하가 **주거지를 선택하실 경우 다음 A, B 요인의 중요성**을 표시해 주십시오.

요 인 (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 인 (B)
	1	2	3	4	5	6	7	8	9	
입지 요인										주택 요인
입지 요인										사회경제 요인
주택 요인										사회경제 요인

구체적인 **요소별 요소의 중요성**을 표시해 주십시오.

㉞ 입지요인

요 소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요 소 (B)
	1	2	3	4	5	6	7	8	9	
교통편리성										주변 교육, 문화, 상업시설
교통편리성										직장, 학교까지의 거리
주변 교육, 문화, 상업시설										직장, 학교까지의 거리

㉠ -1. 입지요인 중 교통요인

요 소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요 소 (B)
	1	2	3	4	5	6	7	8	9	
대중교통 편의성										자가용 편의성

㉠ -2. 교통요인 중 대중교통수단요인

요 소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요 소 (B)
	1	2	3	4	5	6	7	8	9	
전철이용 편의성										( 시내 ) 버스이용 편의성

㉡ 주택요인

요 소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요 소 (B)
	1	2	3	4	5	6	7	8	9	
주택규모 및 마감재										주택의 채광과 통풍
주택규모 및 마감재										주차시설 확보 수준
주택의 채광과 통풍										주차시설 확보 수준

㉢ 사회, 경제적 요인

요 인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요 인 (B)
	1	2	3	4	5	6	7	8	9	
주택가격 (임대료)										월유지 · 관리비
주택가격 (임대료)										동네 및 아파트의 인지도(평판)
월유지 · 관리비										동네 및 아파트의 인지도(평판)

**설문대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                    )세
3)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및 사별
4) 학력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이상 졸업
5) 직업	① 개인사업          ② 전문직(의사 등)   ③ 판매/서비스업   ④ 농림어업
	⑤ 공무원, 군인   ⑥ 학생            ⑦ 기타            ⑧ 주부            ⑨무직
6) 직장(학교)위치	시(군)                            구(읍)                            동(리)
7) 자동차 보유여부	① 없음                    ② 있음
8) 주요 출근/등교 교통수단	① 자가용                  ② 버스                            ③ 전철                            ④ 자전거
	⑤ 도보                            ⑥ 택시                            ⑦ 기타
9) 월소득 (지원금 포함)	① 50만원미만    ② 50만원~1백만원 미만   ③ 1~3백만원 미만   ④ 3~5백만원 미만
	⑤ 5~7백만원 미만   ⑥ 7~천만원 미만          ⑦ 천만원 이상
10) 총자산 (부채제외)	① 천만원 미만    ② 1~3천만원 미만    ③ 3~5천만원 미만   ④ 5~1억원 미만
	⑤ 1~3억원 미만   ⑥ 3~5억원 미만          ⑦ 5억원 이상

응답자 거주지	<b>동(행정동)</b>	<b>응답자 연락처</b>	
---------	---------------	----------------	--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 2. 우리나라 7대도시 1인 가구의 사회, 경제적 특성분석 결과 : 2010년 주거실태조사자료(국토연구원) 분석

### □ 연령대

		도시 구분							전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253	60	42	46	59	<b>55</b>	8	523
		%	25.1%	16.5%	13.5%	13.7%	22.9%	<b>23.7%</b>	5.0%	19.6%
	30-50대	빈도	463	146	129	155	106	<b>106</b>	86	1,191
		%	45.9%	40.1%	41.6%	46.1%	41.1%	<b>45.7%</b>	53.4%	44.6%
	60대 이상	빈도	293	158	139	135	93	<b>71</b>	67	956
		%	29.0%	43.4%	44.8%	40.2%	36.0%	<b>30.6%</b>	41.6%	35.8%
전체	빈도	1,009	364	310	336	258	<b>232</b>	161	2,670	
	%	100.0%	100.0%	100.0%	100.0%	100.0%	<b>100.0%</b>	100.0%	100.0%	

- 카이제곱 : 87.337
- 자유도 : 12
- 유의확률 : 0.000

### □ 주택 유형

		도시 구분							전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현 주택 유형	일반단독주택	빈도	205	63	66	51	74	<b>39</b>	30	528
		%	20.3%	17.3%	21.3%	15.2%	28.7%	<b>16.8%</b>	18.6%	19.8%
	다가구단독주택	빈도	434	111	133	78	85	<b>72</b>	58	971
		%	43.0%	30.5%	42.9%	23.2%	32.9%	<b>31.0%</b>	36.0%	36.4%
	영업겸단독주택	빈도	24	11	15	5	7	<b>36</b>	5	103
		%	2.4%	3.0%	4.8%	1.5%	2.7%	<b>15.5%</b>	3.1%	3.9%
	아파트	빈도	132	90	77	84	75	<b>51</b>	53	562
		%	13.1%	24.7%	24.8%	25.0%	29.1%	<b>22.0%</b>	32.9%	21.0%
	연립주택	빈도	41	8	6	27	9	<b>7</b>	9	107
		%	4.1%	2.2%	1.9%	8.0%	3.5%	<b>3.0%</b>	5.6%	4.0%
	다세대주택	빈도	78	55	9	61	4	<b>24</b>	4	235
		%	7.7%	15.1%	2.9%	18.2%	1.6%	<b>10.3%</b>	2.5%	8.8%

비거주 용건물 주택	빈도	18	8	4	0	4	3	2	39
	%	1.8%	2.2%	1.3%	0.0%	1.6%	1.3%	1.2%	1.5%
오피스텔	빈도	75	14	0	22	0	0	0	111
	%	7.4%	3.8%	0.0%	6.5%	0.0%	0.0%	0.0%	4.2%
쪽방, 판잣집	빈도	2	3	0	8	0	0	0	13
	%	0.2%	0.8%	0.0%	2.4%	0.0%	0.0%	0.0%	0.5%
기타	빈도	0	1	0	0	0	0	0	1
	%	0.0%	0.3%	0.0%	0.0%	0.0%	0.0%	0.0%	0.0%
전체	빈도	1,009	364	310	336	258	232	161	2,67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카이제곱 : 430.355
- 자유도 : 54
- 유의확률 : 0.000

## □ 점유형태

		도시 구분							전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현 주 택 유 형	자가	빈도	143	91	86	120	65	43	50	598
		%	14.2%	25.0%	27.7%	35.7%	25.2%	18.5%	31.1%	22.4%
	전세	빈도	344	41	61	77	48	36	15	622
		%	34.1%	11.3%	19.7%	22.9%	18.6%	15.5%	9.3%	23.3%
	보증금 월세	빈도	457	176	90	106	103	125	47	1,104
		%	45.3%	48.4%	29.0%	31.5%	39.9%	53.9%	29.2%	41.3%
	무보증 금월세	빈도	33	27	32	12	10	10	6	130
		%	3.3%	7.4%	10.3%	3.6%	3.9%	4.3%	3.7%	4.9%
	사글세	빈도	1	2	10	7	14	3	4	41
		%	0.1%	0.5%	3.2%	2.1%	5.4%	1.3%	2.5%	1.5%
	일세	빈도	0	1	0	0	0	0	0	1
		%	0.0%	0.3%	0.0%	0.0%	0.0%	0.0%	0.0%	0.0%
	무상	빈도	31	26	31	14	18	15	39	174
		%	3.1%	7.1%	10.0%	4.2%	7.0%	6.5%	24.2%	6.5%
	전체	빈도	1,009	364	310	336	258	232	161	2,67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카이제곱 : 399.992
- 자유도 : 36
- 유의확률 : 0.000

□ 자동차 보유

			도시 구분						전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자동차	있다	빈도	179	59	73	84	80	<b>61</b>	62	598
		%	17.7%	16.2%	23.5%	25.0%	31.0%	<b>26.3%</b>	38.5%	22.4%
	없다	빈도	830	305	237	252	178	<b>171</b>	99	2,072
		%	82.3%	83.8%	76.5%	75.0%	69.0%	<b>73.7%</b>	61.5%	77.6%
전체		빈도	1,009	364	310	336	258	<b>232</b>	161	2,670
		%	100.0%	100.0%	100.0%	100.0%	100.0%	<b>100.0%</b>	100.0%	100.0%

- 카이제곱 : 59.235
- 자유도 : 6
- 유의확률 : 0.000

□ 교통문제

			도시 구분						전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교통문제	대중교통부족	빈도	92	75	68	46	38	<b>46</b>	45	410	
		%	9.1%	20.6%	21.9%	13.7%	14.7%	<b>19.8%</b>	28.0%	15.4%	
	주차시설부족	빈도	286	75	64	108	44	<b>79</b>	39	695	
		%	28.3%	20.6%	20.6%	32.1%	17.1%	<b>34.1%</b>	24.2%	26.0%	
	교통체증	빈도	101	16	8	8	5	<b>2</b>	8	148	
		%	10.0%	4.4%	2.6%	2.4%	1.9%	<b>0.9%</b>	5.0%	5.5%	
	안전시설부족	빈도	30	11	1	3	14	<b>6</b>	4	69	
		%	3.0%	3.0%	0.3%	0.9%	5.4%	<b>2.6%</b>	2.5%	2.6%	
	교통법규위반	빈도	5	1	1	0	0	<b>0</b>	2	9	
		%	0.5%	0.3%	0.3%	0.0%	0.0%	<b>0.0%</b>	1.2%	0.3%	
	기타	빈도	8	2	3	7	3	<b>2</b>	2	27	
		%	0.8%	0.5%	1.0%	2.1%	1.2%	<b>0.9%</b>	1.2%	1.0%	
	문제없음	빈도	487	184	165	164	154	<b>97</b>	61	1,312	
		%	48.3%	50.5%	53.2%	48.8%	59.7%	<b>41.8%</b>	37.9%	49.1%	
	전체		빈도	1,009	364	310	336	258	<b>232</b>	161	2,670
			%	100.0%	100.0%	100.0%	100.0%	100.0%	<b>100.0%</b>	100.0%	100.0%

- 카이제곱 : 198.460
- 자유도 : 36
- 유의확률 : 0.000

□ 월소득

		도시 구분							전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월 소 득	50만원 미만	빈도	78	78	39	84	53	<b>33</b>	30	395
		%	7.7%	21.4%	12.6%	25.0%	20.5%	<b>14.2%</b>	18.6%	14.8%
	100만 원미만	빈도	239	133	107	81	68	<b>70</b>	39	737
		%	23.7%	36.5%	34.5%	24.1%	26.4%	<b>30.2%</b>	24.2%	27.6%
	150만 원미만	빈도	178	61	78	46	48	<b>42</b>	22	475
		%	17.6%	16.8%	25.2%	13.7%	18.6%	<b>18.1%</b>	13.7%	17.8%
	200만 원미만	빈도	161	33	28	50	43	<b>37</b>	22	374
		%	16.0%	9.1%	9.0%	14.9%	16.7%	<b>15.9%</b>	13.7%	14.0%
	300만 원미만	빈도	203	34	40	49	21	<b>36</b>	25	408
		%	20.1%	9.3%	12.9%	14.6%	8.1%	<b>15.5%</b>	15.5%	15.3%
	300만 원이상	빈도	150	25	18	26	25	<b>14</b>	23	281
		%	14.9%	6.9%	5.8%	7.7%	9.7%	<b>6.0%</b>	14.3%	10.5%
	전체	빈도	1,009	364	310	336	258	<b>232</b>	161	2,670
		%	100.0%	100.0%	100.0%	100.0%	100.0%	<b>100.0%</b>	100.0%	100.0%

- 카이제곱 : 204.773
- 자유도 : 30
- 유의확률 : 0.000

□ 생활비

		도시 구분							전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생 활 비	50만원 미만	빈도	228	131	105	129	100	<b>49</b>	54	796
		%	22.6%	36.0%	33.9%	38.4%	38.8%	<b>21.1%</b>	33.5%	29.8%
	100만 원미만	빈도	395	170	134	124	103	<b>98</b>	66	1,090
		%	39.1%	46.7%	43.2%	36.9%	39.9%	<b>42.2%</b>	41.0%	40.8%
	100만 원이상	빈도	386	63	71	83	55	<b>85</b>	41	784
		%	38.3%	17.3%	22.9%	24.7%	21.3%	<b>36.6%</b>	25.5%	29.4%
전체	빈도	1,009	364	310	336	258	<b>232</b>	161	2,670	
	%	100.0%	100.0%	100.0%	100.0%	100.0%	<b>100.0%</b>	100.0%	100.0%	

- 카이제곱 : 114.275
- 자유도 : 12
- 유의확률 : 0.000

□ 학력

			도시 구분						전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학 력	초교졸 업이하	빈도	195	130	110	121	81	59	64	760
		%	19.3%	35.7%	35.5%	36.0%	31.4%	25.4%	39.8%	28.5%
	중학교 졸업	빈도	106	41	37	49	31	31	17	312
		%	10.5%	11.3%	11.9%	14.6%	12.0%	13.4%	10.6%	11.7%
	고등학교 졸업	빈도	298	129	98	101	69	80	39	814
		%	29.5%	35.4%	31.6%	30.1%	26.7%	34.5%	24.2%	30.5%
	대학졸 업이상	빈도	410	64	65	65	77	62	41	784
		%	40.6%	17.6%	21.0%	19.3%	29.8%	26.7%	25.5%	29.4%
전체	빈도	1,009	364	310	336	258	232	161	2,67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카이제곱 : 150.632
- 자유도 : 18
- 유의확률 : 0.000



기본연구보고서 2012-8

---

## 대전시 1인 가구의 증가와 대응방안 연구

---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2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28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 1길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

인쇄: 협성문화사 TEL 042-627-8893 FAX 042-627-8997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